

[2005. 11. 16.~25. 고대대학원 총학생회 주최 강연]

세계체계분석과 역사적자본주의

백 승 옥 (중앙대 사회학과)

<제1강>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을 위하여: 브로델과 폴라니

- I. 세계체계 분석의 관심
- II. 페르낭 브로델(장기지속과 삼층도식)
- III. 칼 폴라니

<제 2강> 세계체계 분석의 등장: 이매뉴얼 윌러스틴

- I. 기획
- II. 구도: 세계체계 분석 출현의 이론적 논쟁 배경
- III. 세계경제
- IV. 국가
- V. 자유주의와 반체제운동
- VI. 자본주의 탄생의 논점
- VII. 윌러스틴의 한계

<제3강>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 지오반니 아리기

- I. 세계체계 분석 내부의 비판
- II. 『장기 20세기』의 이론적 배경
- III. 『장기 20세기』 분석의 기본 개념들
- IV. 네 번의 헤게모니 순환
- V. 장기 16세기
- VI. 영국의 세기
- VII. 미국의 세기
- VIII. 20세기 말 벨에포크

<제4강> 20세기의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20세기 자본주의의 동학]

- I. 신자유주의 금융화
- II. 신자유주의와 경제사회적 전환
- III. 제국의 불안정한 토대

[동아시아와 세계체계]

- I.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중첩된 시간대의 문제
- II. 냉전과 동아시아의 성장
- III. 일본의 부흥과 동아시아 경제
- IV. 신흥공업경제(NIEs)의 출현과 위기
- V. 동아시아의 새로운 팽창 -- 동남아시아(ASEAN)의 편입
- VI. 새로운 지역의 포섭 -- 중국과 북한
- VII. 세계체계의 지정학과 동아시아

[노동과 노동운동의 역사, 그리고 역사적 맑스주의]

- I. 세계체계의론의 강점과 약점: 계급과 노동문제와 관련해
- II. 아리기의 문제제기: 「맑스주의의 세기, 미국의 세기」
- III. 실버의 『노동의 힘』의 제한적 기여

[미국헤게모니 쇠퇴의 함의]

- I. 세계경제의 차원
- II. 국가간 체계의 차원
- III. 동아시아
- IV. 노동
- V. 운동의 위기

[세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 I. Global
- II. Regional
- III. Local

<제 1 강>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을 위하여: 브로델과 폴라니 (세계체계 분석의 계기)

* 강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한 학기 분량임을 고려해 줄 것

I. 세계체계 분석의 관심

1. 20세기말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 우리는 신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고, 동시에 또한 미국의 ‘제국’적 팽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신자본주의는 금융화로 나타나는 자본자유화, 노동의 유연성(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그리고 ‘발전주의’로 표상된 국가 발전전략의 쇠퇴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무한 경쟁과 TINA 라는 이데올로기 -- 과연 지속가능한가?]
-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팽창과 네오콘: 왜 나타나는가? 쿠데타에 불과한가? 모순을 알면서 왜 그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 더불어 나타나는 특징들: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 제3세계에서 국가통합력의 약화,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위기 (제도화한 케인즈주의 붕괴 이후 구체책은 좌우의 포퓰리즘)

2. 한국사회성격논쟁의 계기 (쟁점은 ①자본주의인가? ②어떤 자본주의인가?)

(1) 식반론대 신식국독자론

- 안병직 등의 식반론: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부정(나중에 중진자본주의론 거쳐 박정희 시대 찬양론으로) -- 은폐된 ‘근대화론’의 문제제기(근대화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하여 근대의 길로 나가자는. 여기서 근대화=서구적 자본주의)
- 한국사회 논쟁의 두 계기: 전태일과 광주

- 맑스주의 개입이라는 계기
- 종속이론이라는 짧은 계기: 한국사회의 문제의 근원을 ‘주변부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 > 프랑크의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관심(그러나 이를 중심-주변의 관계 속에서 보기보다는 저발전국의 ‘내적 요소들’로서 파악)
 - >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의 계기의 올바른 포착의 실패(특히 ‘반주변부’로서의 위치, 그리고 특히 냉전하의 동아시아의 반주변부라는 시대적 특징 파악의 실패)
 - > 이것이 세계체계 분석 등장의 제1계기(종속이론의 한 변종으로서: 따라서 연구 없이 부정됨)
-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의 문제가 핵심(어떤 자본주의인가?): 이는 실천적으로 87년의 7,8,9 투쟁으로 표출됨

(2) 신식국독자라는 계기

- 빠른 자본주의화의 이론화의 문제: 특히 재벌 중심/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본주의화(즉 자유경쟁 자본주의 거치지 않은 급속한 독점화의 과정)
- 독점자본주의로서의 한국 경제: 여기서 즉각 두가지 방식이 분화
 - ①자본주의 일반의 단계규정으로서 제기 ②자본주의 발전단계와 발전유형의 구분
- 박현채 문제제기의 중요성: 발전유형론(선발형, 후발형, 식민지종속형)
- 발전단계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발전유형으로서 식민지 종속형(그 하위분화가 문제로 남음) -->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론화
 - 그 전사: 중국사회성격논쟁 -- 마오의 관료자본론: 매관적·봉건적 국가독점자본주의(국독자의 단계론이 아니라 경향론을 수용하는 맥락) --> 남미의 종속적국독자론과도 연결
 - ==> 핵심적 함의: 식민지종속형 자본주의 고유성과 서구형자본주의로 수렴불가능성[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세계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차별성에 작용하는 구조의 효과]
 - > 이는 ‘덜 근대적’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근대적’이어서 생기는 문제(따라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의 문제제기를 폐기) -->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근대라는 세계체계론의 핵심 문제제기를 포착 (반근대화론적 계기) [자본주의 발전은 장밋빛의 근대화가 아니라 모순의 심화과정이라는 자본주의관]

(3) 문제로서의 『제국주의』의 단계 구분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전거는 레닌의 『제국주의』의 독점자본주의론(이는 다시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에 전거 -- 그 모델은 독일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시대)
- 자본주의의 최고최후의 단계, 썩어가는 자본주의, 사멸하는 자본주의로 --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지적
 - 19세기 영국이 주도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순의 지양과 그 실패의 과정
 - 독일의 독점자본주의 모델: 영국의 이른바 ‘자유경쟁 자본주의’[이데올로기일 뿐](그 말은 어폐가 있음을 아리가 지적할 것임: 또는 산업자본주의 --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님, 영토적 제국주의를 토대로 세계적 상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의 작업장이라는 규정)의 위기 -- 그 위기의 실체는? --> 이윤율의 저하?
 - 그 지양으로서 ①자본의 집적과 집중 ②금융과두제 ③자본수출(과잉축적 포착) (이른바 전반 표지) --> 그 결과는 ④식민지의 분할과 재분할 ⑤식민국가간의 세계적 전쟁 --> 자본주의의 위기로 [①조직혁명 ②과잉축적 해소 문제 ③영토주의 논리 확대라는 구도]

- 여기에 불균등 발전 + 물질토대 갖추어진 PDR론
- >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그림에서 미국만 등장하지 않으면 타당한 논리가 됨
- 그러나 이는 미국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대체됨 --> 영국해계모니(최초로 세계적 영역에서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
- 19세기의 삼중의 위기(이윤율의 저하, 노동자들의 저항, 식민지의 저항)을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 (대전환: 폴라니)

* 난점

- ① 독일 모델과 차별화하는 미국의 세기를 포착하기에 국독자론의 난점
:자본주의 일반의 단계 아니라 19세기말 20세기초 위기 정세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파악해야
- ② 국독자론의 일국적 접근법의 한계(이는 동시에 ‘사회구성체’론의 한계이기도) -- ‘국가간 체계’이 관점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난점들
- ③국가간 체계질서 재편의 문제: 모순 증폭이후 과국이 아니라 그 모순이 어떻게 해소되는가(국독자 국제적 체계라고 보는 논지라면, 그 체계의 특성이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 제국주의간 관계의 지양과 재편에 대한 논의의 한계(신식민지론은 중심-주변의 비대칭관계의 지속을 지칭하지만 중심부-중심부 사이의 관계 해석에서는 한계)
- ④ 노동에 대한 실질적 포섭의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른바 대중소비 사회와 ‘작업장 교섭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화한 노동운동과 복지국가) --> 테일러주의에 대한 레닌의 맹목점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에서)
- ⑤ 신식국독자로서 한국의 위치의 해석 문제: 상이한 콩중크튀르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동학 포착의 난점 (즉 냉전 하의 쇼윈도우로서 발전주의의 시기와 신자유주의 시기에 작동하는 상이한 위기의 동학,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의 재구조화의 문제. 순환적 변화에 따른 생산의 재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저평가)
(지정학에 의해, 그리고 콩중크튀르에 의해 과잉결정된 발전모델의 시간대적 한계성)
- ⑥ 이는 자본주의적인 것과 자본주의적 기원을 갖지 않는 것이 동시대적으로 결합되는 논리에 대한 포착의 난점 (세계체계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의 지배성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

==> 자본주의에 대한 반근대화론적 비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지형속에서 비판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 (비판효과의 소실)

3.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문제

- 세계체계 분석 등장의 제2의 계기
- 현존사회주의는 무엇이었는가? 왜 붕괴했는가? (답을 찾으려면 아직도 많은 작업 필요)
-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트로츠키식으로 ‘타락한 노동자국가’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일까? (왜 타락하는가? 트로츠키 대신 스탈린이 집권했기 때문에?)
- 답은 그 발전노선(과연 상품화-상품화폐관계에 대한 적절한 역전이었는가)과 정치(과연 새로운 공산주의적 정치였는가, 대중적 정치의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새로운 조직적 원리가 마련되었는가? -- 소비에트/평의회/노동자자주관리의 단초들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소련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상징: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른바 소련의 혁명노선을 외교노선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은? (상징으로서 소련의 국민당 지원 -- 이론적 문제였을 뿐인가, 그리고 동유럽 '민주화'에 대한 적군의 개입)
-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와 경향으로서의 사회주의(어떤 경향이 존재했는가의 문제)
- 사회주의의 성격규정의 쟁점: 다음 윌러스틴 다루는 시간에
- * 결과적 역설: 중국의 예 --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마오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 마오시기 덕분에라는 해석이 가능 --> 공업화 토대의 빠른 성장, 국가의 집중력
- 탈레에서 접레로: 외부와 단절된 조건 하에서 빠른 경제성장 달성 위해 내부 자원의 불균등한 집중지원(중화학우선 공업화)/ 대중의 열의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정치적 민주주의 유예(상시화한 위협의 논리를 통해) --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의 지속 (자본가 계급이 없는 자본-노동관계 유지라는 쟁점)
 - > 그것은 '따라잡기' 논리의 연장선 속에 있었다(15년 내에 미국을, 또는 영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 무엇을? 철강생산이 그 상징)
 - >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중상주의 모델과의 유사성(보호주의를 통한 내부 산업의 집중적 육성 이후,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세계 시장에 편입) : 국가자본주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실패 아니고, 또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 집합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성공) [물론 문화혁명이라는 이단을 고려해야]
- 세계체계의 외부에 있기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반주변부 길의 전략으로 해석 --> 그리고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의 틀을 극복하기 어려움 (윌러스틴은 현존사회주의를 자유주의의 한 변종으로 해석 --> 그러나 '사회주의 경향'이라는 쟁점은 존재. 중국의 문혁의 사례 (마치 프랑스혁명이 제도로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균열로 작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 일국에서 작동하는 이행의 논리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이행의 논리로
- 현재의 역설: 세계자본주의 팽창의 한계에 새로운 소생을 불어넣는 것은 주로 구 사회주의권(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유럽) (자본주의 작동의 세계적 규모)

4. 국가간체계에 작용하는 민족주의라는 동일성의 문제

- 사회주의에 작동한 민족주의의 맹목성의 문제
- 20세기 사회운동의 역사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결합의 역사 (민족화한 공산주의라는 형태 -- 그것은 발전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장함)
 - > 그것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
- 강점: 대중의 열망을 모르면서도 담아내어 폭발력으로 작동
 - 약점: 그 민족주의적 측면이 사회주의적 경향을 질식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난점
- 더 나은 세계경제상의 지위 획득 위한 국가적 경계의 강화 -- 중기적 목표를 위해 장기적 목표를 유예할 수 있는 자유주의 논리의 관철 [그것은 때로 국가의 목표가 우선시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대립으로, 그리고 내적 민족적 동일성의 강화를 위해, 내부적 차이의 억압으로 나타남 -- 억압된 측면의 부활로서 탈사회주의시기의 종족 정체성과 대립의 심화]
- 노동자이기 이전에 노동자-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형성: 특히 20세기 아리기가 '프롤레타리아의 민족화'라고 부르는 상황 (계급적 모순이 공간적 분할에 따라 분열된다)

- 자유주의의 포섭력에 대한 저평가
 - > 세계경제가 국가간체계로 존재하면서 형성하는 분할의 효과
- 윌러스틴이 말하는 반체계 운동의 한계: 구좌파의 국가중심적 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모두가 그 한계 속에서 파멸의 길을 걸었다. 강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5. 신자유주의의 문제

- 세계체계 분석 등장의 세 번째 계기

==> 세계적 공간 속에서 장기의 역사 속에서 차별화된 효과들 속에서 이해할 필요성

다시 말해 시간대의 중첩성과 공간의 분할이 중요함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적 원리로만 환원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지칭)

①세계경제와 국가간체계의 모순적 접합이라는 논리 ②자본주의적 논리와 영토주의의 논리로 다시 번역 ③중심-반주변-주변이라는 공간적 분할의 효과 ④장기지속과 헤게모니 순환이라는 시간대의 결합 ⑤체계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화의 과정(그리고 그에 의한 다른 이데올로기의 포섭) ⑥덧붙이면 노동에 대한 실질적 포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선(맑스의 논의의 중요점) (지리적 차별화)

II. 페르낭 브로델 (장기지속과 삼층도식)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1) 자본주의 고유의 장소는 있는가?

- 자본주의의 본질은 생산에 있는가?: Yes인 동시에 No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하니까 Yes라는 대답 --> 그러면 ①꼭 자본주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가? ②그 생산을 장악하는자가 꼭 축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 점하는가?)

- 생산에 중심두는 자본주의 아닌 자본주의라는 브로델의 지적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권에서, 제3장은 「생산: 자기 영역을 벗어난 자본주의」이고, 제4장은 「자기 영역에서의 자본주의(즉 상업)」이다 --> 브로델의 입장은 상업자본주의론으로 알려져있다

- 유통이 자본주의의 본래 영역.

자본주의의 생산 침투는 기계사용으로 산업도 이윤확대 가능해진 산업혁명기에 나타남. 매뉴팩처는 국가 특권에 힘입은 것만 살아 남았다 (『물질문명』)

--> 현시기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금융자본주의: 어떻게 금융자본주의가 우월성을 지닐 수 있는가? --> 생산의 이윤이 금융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물론 맞다) --> 그러면 금융'자본주의'라고 말할 때 그 '자본주의'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어떤 원리의 작동을 말하는가?)

(2) 맑스의 『자본』의 설명대상

- 맑스 『자본』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자본주의의 기원? or 작동원리? or 자본주의 필요충분조건 or 역사적 전과과정 설명?)

- 『자본』 서술 구도에 대한 논쟁: 역사주의와 논리주의 -- 역사주의는 발생론적 설명으로

해석, 논리주의는 헤겔에 근거한 논리적 설명으로 (알튀세르의 개입: 통일성의 부재 -- ‘역사적 장’의 중요성

- 『자본』의 핵심은 ‘노동력이 상품화’ 되어야 비로소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장인가?

아니면 노동력의 상품화를 초래한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어떤 근본적 대전환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지인가? (플라니의 논의에서 다시 돌아감: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특징/경향)

--> 단지 노동력의 상품화 뿐 아니라 기계에 의한 노동의 종속 이후 발생하는 변화와 법칙(상대적잉여가치, TRPF), 시간의 상이한 형성

2. 브로델의 역사관

(1) 전체사

- 분과학문에 의한 구분의 틀을 넘어서는 통합의 역사관(특히 경제와 정치는 분할되지 않는다)

(2) 문제사

- 역사서술을 사건들의 내러티브로 볼 수 없고, 역사가의 질문이나 문제설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봄

- ‘모델’의 문제: 다시 언급

3. 브로델의 다중적 시간대

(1) 네가지 시간대

①단기(사건의 시간) ②중기(conjoncture) ③장기지속 ④초장기지속

(2) 단기의 문제

- 사건들의 연쇄를 추적: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의 결과임 (정치사의 기술) -- 설명 방식은 우연성/ 또는 더 많은 변수 추가에 의한 설명의 요인의 다수화(구조의 다층성은 아님)

--> 사회과학의, 특히 통계적 기법에 의존하는 설명방식의 기본 틀임

브로델은 사회학자의 시간이 다수성을 주장하긴 하지만, 각기 분절된 현상 속의 시간은 설명 속에서는 정지되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다고 주장

- 기자의 시간이다

- 제도/종교/문명에 대한 관심 아니라고 봄

- 역사화한 서술에서 시간을 도입해도 이는 구조화한 시간의 중첩성이 아니라 단일 평면의 시간에 불과함

(3) 초장기지속의 문제 (레비스트로스의 시간)

- 장기지속을 넘어서서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구조만의 시간

보편적 교환의 삼각형과 같은

- 사회과학에서 시간을 벗어나는 ‘모형’의 시간

-->윌러스틴이 말하는 개별기술적(ideographic)과 법칙정립적(nomothetic)이라는 구분

(4) 장기지속과 콩종크튀르

- 장기지속(longue duree): 구조의 시간/모델의 시간
구조 자체를 지속시키는 장기의 시간
- 콩종크튀르: 장기지속 속에서 변화하는, 그렇지만 사건들의 집합이 아닌 순환의 곡선을 보여주는 일정한 변동들
- 브로델의 장기지속: 『지중해』에서는 기후나 지형, 『물질문명』에서는 자본주의 자체
브로델의 콩종크튀르: 인구변동, 물가변동 --> 주로 콘드라티에프로 설명
브로델의 장기추세: 로지스틱스로 봄 (월러스틴은 로지스틱스를 헤게모니 순환으로 보고, 이를 장기추세와 구분) --> 아리기의 반론이 제기됨 (『장기 20세기』)
- 콩종크튀르가 장기지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동시에, 그 장기지속의 증단을 가져옴 (브로델은 장기지속의 사상가이지만, 콩종크튀르의 사상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5) 모델

- 그러면 어떤 것이 장기지속인가?
- 모델: 역사 서술을 문제사로 규정하는 중요한 틀
- 모델과 장기지속: 모델이 기록하려는 실재가 지속되는 기간이 장기지속. 그 모델은 장기지속되는 시간만큼 가치를 지닌다
--> 모델에 따라 장기지속의 기간이 달라지며, 장기지속에 따라 모델도 달라진다
- 배와 난파: 특정 모델은 그것이 담고있는 장기지속을 초월하면, 시간의 물결을 건디지 못하고 난파된다
- 자본주의라는 장기지속: 13세기 이후 삼층도식 통해 설명되는 장기지속 (그것을 장기지속으로 설명하는 원리는 -- 즉 종차는?)
- 자본주의의 시간대: 그 장기지속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시간대(콩종크튀르: 그 콩종크튀르는 동일하게 반복될까?) -- 함의 ①자본주의 분석은 그 장기지속의 법칙의 설명만은 아니지만, 그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자본주의를 자본주의로 만드는 일반적 원칙/법칙) ②콩종크튀르는 ‘순환’이지만 동일성의 반복은 아니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 장기지속은 동일한 반복의 역사가 아니라, 상이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역사성의 문제)
- 잠시 맑스의 문제: ‘역사 없는 역사성’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상대화하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 『자본』에서 제기되는 역사적장의 중요성이라는 문제 --> 특히 거기서 함의는 분석이 ‘자본’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 ‘마주침’의 논리들, 특히 국가가 개입됨 (『자본』 통일성 파괴라는 테제)

(6) 브로델과 맑스주의

- 맑스주의의 대피소로서의 브로델(교조화한 맑스주의에 대한 우회로로서 역사연구) -- 마치 철학처럼 우회로로 작동(그람시의 이탈리아와 역사학이 있는 영국을 빼고) -- 월러스틴의 평가 (마치 세계체계 분석이 맑스주의의 동시대적 대피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 브로델과 맑스에게만 있는 강점: ‘정세’라는 개념과 그 시간대(conjoncture: conjuncture -- 마오는 이를 주요모순으로 개념화) -- 예를 들어 푸코에게 근대는 ‘장기지속’일 수는 있어도 콩종크튀르는 아니다.

4. 삼층도식

(1) 삼층도식

-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설명 모델을 ①물질문명 ②시장경제(교환의 세계) ③자본주의라는 세가지 층의 결합으로 본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상부구조로서 반(反)시장경제로 규정

- 물질문명: 일상생활의 영역.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고, 거의 변화하지 않는 듯 보이는, 농경, 식습관, 주택 등의 영역 -- 교환에 의해 표면에 부각되지 않는, 그렇지만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영역

- 시장경제: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가 주 목적이 되는 투명한 교환의 영역. 가격의 결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윤이 최저선에서 결정되며, 축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환영역이다

-->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경제에는 시장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

(2) 자본주의

- 시장경제는 이윤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한다(이윤철폐). 이윤의 축적은 시장경제 상부구조로서 인위적인 독점이 형성됨으로써 가능하다

* 그 함의

①자본주의는 세계경제: 세계적 차원의 독점을 향한 경쟁이다. 원거리무역의 독점에서 출현 (이는 또한 오리엔트 없이 유럽 자본주의 출현의 불가능성의 지적임)

②계서제의 형성(승자와 패자). 지리적 집중이 일어나고 세계도시가 출현한다 -- 독점이기 때문에 집중화 경향이 등장

③정치와 경제의 융합: 국가없이 독점없다 --> 국가없이 자본주의 없다 (국가없는 부르주아지는 없다) -- 정치와 경제의 융합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가장 강력한 경제학비판의 함의)

④자본주의의 변신성: 자본주의의 고유의 영역은 없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은 탁월한 변신성

-->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다. a)고이윤 영역은 생산과 유통과 금융 사이를 옮겨다닌다 b)생산만을 특권화해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특정 시기에 한정) c)'금융상의 만개는 완숙기, 가을의 표지이다'

-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세계적으로 확대한 듯한 느낌도(레닌에 대한 브로델의 우호적 평가)

5. 브로델 모델의 강점과 약점

(1) 강점

- 세계경제로서의 자본주의: 윌러스틴과 공유하는 관점 (세계적 집중점 이동도)

- 정치와 경제의 융합으로서의 자본주의: 세계적 무대에서 독점을 향한 경쟁 (시장경제 자율성이나 정치/경제의 분리라는 논리 전복)

- 금융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 -- 공간/제품/금융적 재정립

(2) 약점

- 삼층도식에서 자본주의 시대에 나머지 두 층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영향이 없는가?

- 자본주의 이전의 시장경제는 '투명했는가' -- 폴라니의 '재분배'라는 관점 없기 때문에 설명의 난점
- 상업자본주의 초점의 한계: 자본주의가 생산의 영역을 장악한 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 독점은 '유통' 영역의 문제라는 한계, 따라서 생산의 내부로부터의 발생은 다른 논리의 추가가 필요 (맑스도 마찬가지임 -- 잉여가치의 양적 분석[회계적 도식]의 한계: 잉여가치에 대한 질적분석이라는 발리바르식의 문제제기의 출발점) --> 윌러스틴도 공유
- 19세기 영국의 등장 이전과 이후 자본주의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브로델과 달리 폴라니가 중요해지는 지점
- 생산이 완전히 핵심이라 할 수 없지만 생산 장악이후 변화 + 재생산 장악 이후 변화

III. 칼 폴라니 (세가지 사회의 원리, 시장의 층위들, 노동·화폐·토지의 상품화,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 파시즘/사회주의/뉴딜의 분화)

1. 폴라니라는 인물

- 헝가리출신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다 미국에 정착
- 정치적으로 오웬주의(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
- embeddedness 논의: 경제가 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논지
- 제도주의로 수용. 이후 신제도주의로 -- 시장을 제도로서 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함, 상이한 제도적 조건 속에서 상이한 사회적 효과를 갖는 맥락(네트워크적 이해도 그 한 맥락)
- > 폴라니의 핵심의 방기: 상이한 시장의 층위들을 구분,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자기과피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폐기하고, 신고전파적 시장관을 보완하려는 노력
- 폴라니의 맥락을 다시 살릴 필요: 역사적 자본주의의 이해라는 맥락
- > 19세기 영국과 세계라는 관련성

2. 맑스/브로델을 통해서 읽는 폴라니

- 19세기 영국이라는 맥락: 브로델/윌러스틴/아리기 모두 18세기 영국을 자본주의의 기원으로 삼는 논의를 반박 (다음 시간의 주제)
- 그럼 19세기 영국의 등장은 무엇인가: ①생산, 그리고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앞서 브로델 한계로 지적) ②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대 -- 유럽에 한정된 '세계경제'가 전지구로 확대되는 동학, 그리고 자기고유의 장소가 아닌 생산을 자기 고유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논리, 그에 따른 이른바 '사회'의 변화는? --> ①세계경제의 구도를 어떻게 전환(정치적 전환 포함해) ②내부적 구도를 어떻게 전환(필요한 만큼만 포섭하는 것에서 전 사회를 포섭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 ①세가지 사회의 원리(호혜성/재분배/시장경제), ②시장의 층위들(local, national, long-distance), ③노동·화폐·토지의 상품화, ④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 ⑤영국 헤게모니 하의 국제 질서, ⑥파시즘/사회주의/뉴딜 길의 분화(20세기 미국 헤게모니로 이전)

3. 19세기의 구도 -- 네가지 틀 (영국 헤게모니 하의 국제 질서)

- (1) 백년평화 -- 유럽의 협조

- ordered anarchy(베스트팔렌)에서 영국 우위의 질서로
(폴라니는 논의하지 않지만 그 군사적 기초[영국 해군력의 우위]에 입각한 영토제국주의)
- (2) 금본위제
 - 영국 자신도 지배하는 '신앙'
- (3) 자기조정적 시장경제
 -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는(아리기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분산된 기업가들 네트워크에 기반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자본주의의 한 버전)
- (4) 자유주의 국가 -- 이른바 '야경국가'

==> 이를 통합한 것은 '고도금융'(high finance) -- 그 신조로서 자기조정 시장경제, 그 제도적 틀로서 금본위제

3. 상이한 사회적 원리들

- 시장에 대한 형식적 접근과 실제적 접근
 - : 형식적 접근은 일반적 원리와 틀로서 초역사적 시장의 논의를 제시, 실제적 접근은 시장의 위상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
- (1) 호혜성
 - 선물의 교환
 - 윌러스틴의 미니체계
- (2) 재분배
 - 포트라치
 - 중국제국: 부의 집중과 재분배
 - 자기조정 시장경제를 억압: 사회의 혼란을 억제/ 동요유발 세력의 세력화를 억제
 - 교역이 반드시 시장을 동반하지는 않는다(예: 조공무역)
 - 개인에 대한 기아의 위협이 사회의 동력이 아니다
 - 경제와 사회의 관계는 이런 구조에 따라서 상이하게 됨
 - > 여기서 경제는 사회에 embedded: 즉 사회가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이 때문에 자기조정적 시장경제가 출현하지 못한다)
- (3) 시장교환
 - 경제의 disembedded -- 경제가 사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로 출현
 - > 그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를 뜯어고친다: 사회는 이에 저항
 -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등장에 따른 변화를 추적(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다)
- (4) 가계
 - 설정 위치가 모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틀

4. 시장의 층위들

- > 시장형성의 자연사적 신화에 도전
- (1) 세가지 시장
 - 원격지시장/국지시장/전국시장(national market)

(2) 국지시장

- 사회의 지배적 경제조직을 시장활동의 방해로부터 지키려고 고안한 수많은 안정장치에 둘러싸여 있음 --> 국지시장에서 전국교역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다
- 국지교역과 원거리 교역은 단절되어 있다

(3) 전국시장

- 서유럽에서 전국교역은 국가 간섭에 의해 창출
[전국시장은 영국/프랑스의 '중상주의'에 의해 창출되었다]
- 전국교역: 처음부터 경쟁적
동일한 재화가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무수한 교환으로 이루어짐
--> 국내 또는 전국 교역이 출현해야 비로소 경쟁이 일반적 교역원리로 받아들여짐(19세기 와서 자리잡음)

5. 허구적 상품

(1) 등장의 맥락

- 전국시장 등장 + 기계제의 등장: 확대재생산의 일반화 (생산의 장소를 장악한 이후의 자본주의)
--> 확대재생산의 일반화 과정 지속 위해 생산요소들이 상품으로 이미 공급되어 있어야 함 (기계제의 장기투자 요구가 커지면서, 공급보장되어야 할 생산요소 많아짐)
- 상업자본 우위의 선대제에서 산업자본 우위로 가게되면 불변자본(특히 고정자본)의 투자양과 리스크가 증대 -- 상업자본 우위와 다른 형태의 국가의 개입과 자본의 작동 논리의 등장
- 본래 상품이 아닌 것들(상품으로 생산된 것이 아닌 것들)의 상품화

(2) 노동 상품화

-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을 강제적으로 상품화하는 과정
- 토지와 연결고리를 뗄 수 없고 농촌 공동체로부터의 통일성을 분리할 수 없음 -- 노동자들의 '자존'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공에 난점
- 스핀햄랜드와 신구빈법의 효과: 스핀햄랜드는 보수주의적 대응, 신구빈법은 자본가들의 공세 --> 효과는 동일
--> 구걸하는 존재로서의 노동자와(근검대신 나태와 수동성), 구빈원에 수용되지 않기 위해 노동규율의 수용 (빈민과 노동자를 구분) --> 기아의 위협을 통한 규율

(3) 토지의 상품화

- 토지로부터 노동자를 분리시킨 후, 토지는 식량상품화를 위한 생산요소로 전환
- 단계: ①토지 상품화(토지로부터 봉건수입 허용) ②공업인구 요구에 대응해 식량과 유기원료 생산에 박차 ③잉여 생산체계를 해외지역, 식민지역으로 확대

(3) 화폐의 상품화

- 교환의 매개에서 화폐의 기능이 독립하여, 화폐의 창조가 자동메카니즘에 따르게 됨
- 그러나 화폐 자체의 가치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현실에서는 기업의 파산이 일반화: 경제

이론에서는 장기적으로 조정되나, '장기적'으로 존속 불가능한 경제가 됨

- 불가피하게 중앙은행 제도가 등장: 보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

--> 이 보호가 국내적 안정성을 목표로(기업의 파괴 방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 체계의 붕괴에 결정적 기여

6. 이중운동 -- 사회의 자기 보호

(1) 이중 운동의 등장

- 노동과 토지에 대해: 반응은 반동적 세력(지주계급)으로부터 시작 -- 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 : 스핀햄랜드(그 결과는 파멸적)

-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힘은 약했다는 평가

--> 그러나 영국과 대륙의 노동운동의 대응방식의 차별성을 낳음

(영국에서는 공동체적 토대의 박멸 -- 선거권은 시장적 생활형태 확산에 기여하면서, 생활형태의 전변에 따른 장애 극복의 맥락으로 작용)

- 지주계급의 과도하게 부여되는 정치적 중요성: 토지와 노동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의 기치

- 이중운동은 반드시 진보적인 것은 아니고 반동적일 수 있다

(2) 화폐에 대한 저항

- 중앙은행의 역할

- 금본위제의 파멸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보호주의로 선회(금본위제 고수가 보호주의 강화)

7. 분기의 발생: 파시즘, 사회주의, 뉴딜

(1) 파시즘의 등장

- 사회의 자기보호를 자유주의가 감당하지 못함

- 사회의 해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파시즘의 핵심: 농민을 포섭해들임(포섭 이후는 배척)

- 1차대전: 세력균형 와해 따라 강대국간 투쟁

2차대전: 세계적 대전환의 한 부분이다

(2) 사회주의

(3) 뉴딜의 전환

- 파시즘/ 사회주의라는 맥락에서 이해

- 사회의 재구성: ①자기조정적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②금본위제의 신앙에 대한 제어 ③노동상품화에 대한 제어

8. 폴라니가 남기는 것

(1) '사회'라는 말의 모호성의 적극적 측면

- '생태'를 포함하는 부분 또는 공동체의 문제/사회조직의 문제 -- 생활양식?

-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는/ 작업장에 한정되지 않는/ 재생산 영역까지 포함한 포괄적 저항의 문제

- 전지구적 차원의 구도

- 19세기와 20세기의 대비: 특히 19세기라는 단절점의 의미(일국적 아니라 전지구적)

- 생산영역을 둘러싼

(2) 문제

-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말의 모호성/ 특히 아래로부터 저항에 대한 적절한 파악의 난점
- 무엇이 사회인가?
-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이라는 관점은 아님: 아니면 오히려 '형식적 포섭'의 과정 (그렇다면 '대전환' 이후의 실질적 포섭과정은?)
- '자본주의'로 규정하지 않는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모호성
- 헤게모니 경합이라는 관점이 없음에 따라 나타나는 미국세기로의 이전 동학 설명의 난점

<제 2 강> 세계체계 분석의 등장: 이매뉴얼 윌러스틴

I. 기획

1. 대립구도

- (1) 근대세계 이해에서 근대화론(자유주의)을 넘어서는 지적 기획(이론적/이데올로기적으로): 지평을 세계경제로 확대하고 '분석단위'의 문제를 제기, 분과학문 경계를 의문시
- (2) 자본주의 출현사에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서구 승리 필연이라는, 기술중심적 해석을 넘어서 역사적 우연, 또는 마주침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필연으로서의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관심 (예견되지 않은, 마주침의 결과로서 필연이라는 탈목적론)

2. '근대'라는 규정의 문제

(1) '모더니티'의 불가능성

- 통상적 모더니티 이해(특히 사회과학): 요소론적 접근([도구적]합리성, 근대적 주체의 형성(이성적·법률적 주체), 법률적 근대성[근대적 사유재산제도], 근대적 시장경제, 도시중심 등등)

--> 그것이 있는 사회는 근대, 없는 사회는 '전통',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근대화', 그것이 모호하게 존재하는 사회는 '이행중' '이중사회' 등등으로 부름 (그러나 어느 사회도 이중사회의 규정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일본, 영국 등등 -- 다만 '지배적'인가의 질문)

--> 단일 모델 (이는 공간과 시간 밖에 존재)

- 모더니티를 요소론으로 보면 계속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푸코의 예: 규율권력에 의해 탄생한 주체 -- 그 공간적 외연의 문제)

- 유럽적인 것의 비유럽으로의 전파, 확산 아니라, 동시적으로 근대는 두 가지 얼굴을 만들어 낸다 (이미 비유럽의 근대는 전근대의 모습과 달라진 세계체계의 규정성 속에 있다)

--> 요소론에서 벗어나 '관계론' 또는 '구조론'으로 나아가야

(2)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난점

-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유럽적 근대만을 근대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반론 (타당성, 특히 subaltern의 관심 -- 두 측면의 동시 형성의 관점으로 발전 가능)

- 난점: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어떤 '요소'인가?), 콜로니얼한 것과 포스트 콜로니얼한 것의 구분의 난점 -- 그 지속성은 강조하지만, 다시 요소론으로 돌아갈 가능성 [더 콜로니얼한 사회와 덜 콜로니얼한 사회라는 구분?]

-- 종속이론의 예에서처럼 보편 대 특수 of 부당 대립으로 갈 수도

(3) 아프리카에 서기

- 세계체계분석에서 아프리카라는 계기 (윌러스틴, 아리기, 마틴 등등)

- 매우 근대적 현상들의 집합으로서의 아프리카

- 자본주의는 누구에게 혜택이고 누구에게 재앙인가

--> 근대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결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소말리아인에게 근대 세계체계가 재앙이다 (주요산업/군벌/외채 등등에 의해 설명되어야)

- 자본주의가 일국적 틀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 누가 혜택인가: 2002년 세계인구 62억 2800만명. 2001년 61억 3414만명
2001년 OECD 인구의 비율은 18.5%, G7은 11.4%
2002년 서유럽,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오스트레리아, 뉴질랜드 합한 인구(즉 서반구)는 8억 6813만명으로 세계인구의 13.9%
- 노예무역과 관련된 설명: ①자본주의 틀 내에서 노예제도의 유용성(그러나 노동규율이 문제되고/생산비 증가하면서 논란) ②아프리카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포섭되면서 노예생산의 내부적 비용이 문제됨 (아프리카 플랜테이션이 고비용이 됨)

(4) 시대 구분으로서의 근대와 콜로니얼리티의 내재성 (모더니티 아닌 관계로서, 또는 세계 체계 구성의 특징으로서)

- 근대를 16세기 이후의 시대적 단절로 규정. 동시에 중심-주변 분할의 제국주의 경향 낳는 '관계'이자 '구조'로서

- 특징들

①자본주의의 장기지속: 그러나 이 시대에 등장하는 것들은 '자본주의'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 역사성/역사적 자본주의)

②민족국가들의 국가간체계

③중심-주변 구조의 내장 (수렴하지 않는 두가지 길)

④자유주의적 정치주체 (근대정치 -- 프랑스혁명의 영향)

⑤인종/성차별 주의

- 함의: ①자본주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연원을 갖은 것의 역사적 절합 ②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두개의 상이한 근대의 길의 병존(종속이론의 테제) ③인종주의 또는 콜로니얼리티의 지속적인 관철로서의 근대(상이한 분할의 효과) -- 또는 다른 말로 제국주의적 경향을 일반화

==> 근대에 대한 유럽중심적 해석의 탈피, 그리고 근대가 발생시키는 분할의 선긋기를 밝힐 필요: ①marginal한 것으로 몰려난 것들[1국 모델에서 흐릿해지는 것들]을 중앙으로 끌어와 복원할 필요 ②그러기 위해서는 무대를 일국으로 설정할 수 없고, the whole로 넓혀서 '관계'를 복원해야 함 (내생/외생 변수의 부당한 대립에서 벗어나기)

II. 구도: 세계체계 분석 출현의 이론적 논쟁 배경

1. ECLA와 종속이론

(1) 종속이론의 문제제기: 매우 근대적 효과로서 제3세계

- 중심-주변의 차별화와 불평등 교환의 문제제기 (다양한 용어로)

- 저발전의 발전 (서구의 성장은 제3세계 저발전의 효과, 역도 마찬가지)

--> 두가지 상이한 근대가 하나의 두가지 효과라는 결론

(2) 종속이론 난점

- 관계적 접근 아닌 속성적 접근: 주변적 축적/통치구조 없으면 중심적인 구조도 없다는 세계체계적 결론으로 나가기보다. 많은 경우 독립적 사회들의 잉여추출메카니즘으로 논의

--> A) delinking적 사고

B) 생산양식접합론의 문제: ①자본주의 생산양식 규정의 난점 ②자본주의 생산양식 규정에서 유럽중심주의 사고 잔존 ③'접합'의 방식을 설명 못함 (윌리엄 마틴 지적)

2. 사회주의 내에서 제기된 논쟁

(1) 사회주의 이행기 논쟁

- 일국사회주의론의 선포(스탈린: 소유제 개조 완료에 따라 계급소멸, 그러나 계급투쟁은 격화 --외인론)

- 마오의 장기의 이행기로서의 사회주의와 계급의 존재
소과도기론과 대과도기론의 논쟁

왜 계급은 존재하는가? 왜 사회주의는 이행기일 수밖에 없는가? -- 질문은 대답을 찾지 못한다 (주자파라는 모호한 규정성과 이데올로기 혁명으로서의 문화혁명과 사상개조로서의 문화혁명의 모호한 줄타기 -- 세계경제라는 구도의 부재의 한계 + 정치의 문제)

- 사회주의의 단위는 일국인가 세계인가

(2)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공산권)

- 발전단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가능성: 5단계론과 대립하는

- 마르크스 개념의 교조화에 대한 문제제기 (맑스는 몇줄만 남겼을 뿐. 맑스 작업을 '광의의 정치경제학'으로 볼 것인가 자본주의에 관한 유한한 이론으로 볼 것인가)

- 역사의 소급적 해석의 난점: 자본주의 등장의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3) 자본주의 이행논쟁: 뚝-스위지 논쟁

- 뚝의 논의: ①분석의 단위는 한 국가(대표적으로 영국) ②생산양식의 교체는 계급체제모니의 교체 ③영국은 농민층 분해(소생산자에서 기원) 통해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으로 자본주의 규정

- 스위지의 반론: ①체제외적으로 성장 요인을 체제 내적으로 설명하려는 무리함(북유럽의 원거리 무역을 강조: 피렌느 영향) ②산업자본가 기원이 소생산자일 필요는 없다고 봄

: 문제점 ①원거리 무역의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해 보지 못함 ②근대공업체제=자본주의로 규정(관심 시기를 이행과정으로 규정) ③자본주의는 더 높은 효율성의 승리로 규정

- 뚝보다 더 뚝적인 브렌너: 14-15세기 위기 결과가 상이해지는 이유는 계급투쟁의 결과다 (동유럽은 낙후해서 계급투쟁이 미약했고, 봉건제에 대한 도전계급 성장 못했다는 논지 (뿌리는 계속 과거로 소급해 노르만의 영국 점령기까지)

--> 원인과 결과의 전도(자본주의 된 결과로서 해석해야))

* 합의

- 내인/외인론 논쟁으로 등장하면서 일국 단위 분석의 한계를 부각시킴 (I.W.는 스위지 지지, 그러나 분석시야를 비유럽으로 더 넓혀야)

- 분석단위 포함해 기존의 논쟁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역사적 자료를 재해석. 학문의 개방성

4. 아날학파와 전체사

- 윌러스틴과 브로델의 관계: ①장기지속과 삼층도식의 수용(전면적이지는 않다: 두 번째 층위의 모호함 때문) ②세계경제라는 개념 차용 ③『물질문명』 III권 시기의 공동작업 ④페르낭 브로델 센터의 이름

-- 그러나 은폐된 이견: 상업자본주의 대 농업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 기점의 13c 설과 16c 설: 아리기 비판에서 다시 거론)

* 수용한 브로델의 주장

- 역사서술은 총체적이어야
-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의 고립성의 비판
- 구조적 시간대와 주기적 과정의 중첩
- 세계경제라는 연구의 대상

* 윌러스틴의 시간대: 삼중의 시간대

①콘드라티에프 ②헤게모니 순환 ③장기적 추세(탈농화, 민주화, 생태의 문제 등 -- 비용의 문제로 바라 봄) -- 아리기와의 대립점

5. 대안으로서 분석단위 문제

- 세계체계를 분석단위로 삼음
- 역사적으로 세가지 체계만 존재: 소체제, 세계제국, 세계경제 (각각 호혜성, 재분배, 시장교환이 주로 작동)

--> 세계제국에서 정치적 통합이 세계경제 논리보다 우위(영토주의가 자본주의를 억압한 체계)

-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오랜 시기 살아남고 변창한 첫 번째 세계경제이고, 그것은 이 세계경제가 자본주의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

- 중심부와 주변부적 관계의 형성: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라 구분됨

--> 생산과정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독점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자유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 양자의 특징을 결합하고 있는 지역을 반주변부로 봄

- 포괄적 비교encompassing comparison과 통합적 비교incorporating comparison의 문제를 남김 -- regional 차이 분석의 난점

- 시공간

6. 정치적 계기의 중요성

- 계기로서의 68년(16세기/ 1789년혁명과 자유주의/ 1968년 세계혁명이라는 구분)

: 기존의 이론과 운동의 한계에 대한 도전 -- 미국내 자유주의 위기. 본인의 경험도

*이론 배경과 관련해 언급해 둘 것

- 로자의 축적론의 영향: 과소소비론과 세계적 팽창 (초기 저작에서 윌러스틴과 홉킨즈 양자에 명시적으로 나타남)

(윌러스틴의 장기추세는 로자의 과소소비론과 팽창의 한계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추가해서 위기에 대한 윌러스틴의 이윤압박설적 견해(노동비용 상승) <--> 아리기는 위기의 결과 이윤압박이 출현했다고 봄(수익성 하락 이후: 이윤압박은 1970년대의 현상 -- 즉 경기침체 이후 노동에 대한 포섭능력 약화)

7. 세가지 혁명론과 자본주의 진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부르주아 혁명론

- 근대적 단절에 대한 신화 (모델로서 프랑스 혁명론)
-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는 충분히 자본주의적이었다
- 지배계급의 내부적 교체: 귀족에서 변신한 부르주아지 -- 돕을 비판하는 근거
지배계급 내의 교체로서의 영국혁명
- 1국적 발전모델에 근거한 진보의 신화에 대한 비판도

(2) 프랑스혁명론

- 제도적 단절은 없다 (엘리트 내부에서 기본 정책 골격을 둘러싼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부각 -- 귀족과 부르주아지 사이의 급격한 단절은 없었다)
수정주의 해석(튀레): 1789년 이전 자유주의 전환 시작되었으나, 대중의 애국적 열정이 자유주의 파멸 이끌었다는 주장(토크빌의 미국 우위론과 연관)
-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 시대의 시작 아니라, 그것의 완전한 성숙
- 더더구나 혁명 급진화되자 지배계급 다시 단결해 대응, 나아가 나폴레옹은 혁명의 보편주의적 확산과 전파의 열정은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변질시킴
- 유럽 여타 국가에 비교한 프랑스의 예외성: 민중혁명(‘권리선언’)
- 근대 정치담론의 근본적 단절이 출현: ‘인민’ ‘주권’ -- 이데올로기적 분기의 출발점이자 ‘자유로운 평등’이라는 새로운 구호의 가능성의 출발점 (세가지 구호의 출발)
--> 부르주아지 지배권 확립에 100년의 역사가 소요됨 (파리코뮌까지)

(3) 산업혁명론

- 연속적 과정/ 실제 나타난 것의 미약함 (반복된 일들)
- 영국 헤게모니에 따른 사후적 합리화 논리
the Industrial Revolution 은 잘못된 논지 (유일성 신화)
--> 세계경제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왜 그렇게 발전했으며, 더 높은 이윤의 행위가 집중되었는가 중요 (내적 요소 때문에 생긴 결과 아니라 세계경제 구조 차원의 문제)
- 인도 면직업과의 경쟁에서 등장한 기계화 과정(수출직물) :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사이에 연관고리가 없음 (2차는 기계화 보급과 식민지 팽창 이후)

(4) 자본주의 진보론에 대한 비판

- 생산력 발전, 기술 발전, 소비재 증가 등의 논리: 어디서, 누구에게, 어느정도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 우선 ‘누구의’ 관점에서 진보인가를 비판 (폴라니를 기억하라)
-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론’의 비판
- 기회만 주어졌으면 우리도 유럽인들처럼 “근대성/자본주의를 출범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고 자원과 민중을 착취하여 그들 자신이 사악한 영웅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하려 했을 것”이라는 합의”(『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250쪽) -- 노예제, 동양문명의 파괴, 인종주의의 극단화, 파시즘, 세계전쟁, 무기의 절멸주의, 생태의 완전한 파괴 등의 면죄부는 없다
- 앞서 콜로니얼리즘 말하면서 언급했듯이 공간적 불평등한 분할을 내장한 근대체제는 인종주의와 양극화를 경향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 -- 덜 근대적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매우 근대적인 문제
- 자본주의가 진보는 아니다. 진보는 필연이 아니라, 필요한 것

(5) ‘분화’에 대한 신화

- the whole의 교체 (폴라니도)

8. 세계체계 분석의 조직화

- 개인작업에서 집단 작업으로 (4인방)

(1) 빙엄튼 대학 사회학과

- 테렌스 홉킨즈의 보이지 않는 기여

- ‘프롤레타리아 하버드’

- RWG의 형성 -- 집단 작업의 전통

①순환과 추세 ②상품사슬 ③헤게모니와 경합 ④지역성과 반주변 ⑤지역포섭과 주변화 ⑥반체계운동 ⑦가계 ⑧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⑨과학과 지식 ⑩지구문화와 문명 ⑪세계노동 ⑫세계체계의 궤적 ⑬헤게모니 비교 ⑭미국의 경제발전 ⑮세계체계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⑯지식의 구조 ⑰반체계운동의 물결

(2) 페르낭 브로델센터

- 『아날』의 부제인 “경제, 사회, 문명”과 브로델 센터의 정식명칭 “경제, 역사적체계, 문명 연구를 위한 페르낭 브로델 센터”

- 브로델의 적자를 주장: 전체사와 문제사를 계승하고 ‘세계경제’를 중시

(3) PEWS 학회

- 미국 사회학회 산하의 제도적 기구

- 그 결과물을 매년 단행본으로(Sage, Greenwood 출판사 등에서)

(4) 잡지

- Review

-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UC Riverside에서 체이스딘이 주관)

- 출판: RWG 작업과 PEWS 작업 동시에 계속 출판 (전자가 좀 더 동질적 지향)

III. 세계경제

1. 기축적 분업

- 단일의 세계적 분업에 의해 통합된 체계. 상품사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세계경제란 하나의 분업의 작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핵심적 상품들의 교환이 자본과 노동의 흐름과 더불어 그 안에 존재하는 넓은 지리적 영역. 그 내부에 다수의 정치적 단위들이 존재하고, 다수의 문화와 집단을 포함. 다만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패턴으로서 지구문화가 존재)

- 단지 분업일 뿐 아니라 ‘끊임없는 자본축적’을 원리로 하며, 이 원리에 밀착한 세력이 더 큰 이득 얻도록 되어있다 (cf.계국: 끊임없는 자본축적을 억제하고 사회통합과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논리가 작동)

--> 필요한 모든 생산을 한 국가의 영토내에 확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 아니다 (비교우위의 논리 -- 선진국에 유리)

--> 자본주의 사회에 이 목적만 있는 것 아니나, 여러 목적이 충돌할 때 어느것이 우선시되느냐하는 문제 있다. (자본축적이 우선시되면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 구조적 메커니즘의

존재 -- 다른 동기는 불이익을 받음)

- 중심: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을 독점한 지역(독점의 방식은 다양)
- * 상품사슬: 관계 구분의 정교화를 위해
- 그 축적의 논리의 구체적 해명을 위해 '상품사슬론'이 중요함
- 여러 지역 가로지르는 다수 생산 및 노동과정을 구조화하는 방식 추적 가능 (물론 한계는 물질적 생산에 한정되고, 금융/상업/지적 관계 등으로 확장하기는 어렵다)
- 윌러스틴보다는 홉킨즈가 강조한 것으로 보임. 중심-주변 분할의 선언적 내용을 경험적 분석으로 연결하는 고리임. 제라피 등에 의해 섬유산업에 대해 분석. 복잡해지는 분업구조에는 과제로 남음

2. 시기구분

- 1974년 첫 논문에서:
- (1)장기 16세기 (1450~1640): 유럽 세계경제의 등장
 - 합스부르크 샤를르 5세 패배. 1557년 결정적 파산
 - 이전 시기에 두드러지게 부상한 지역이 쇠퇴하면서 반주변으로
- (2)중상주의 시대 (1650~1730)
 - 세계경제 내의 제국의 형성
- (3)산업자본의 시대 (1730~1914)
 - 지리적 팽창: 시장 아니라 군사력 발달, 원료 수요 때문
 - 다른 세계체계들의 소멸과 극소체계의 흡수
 - 아프리카를 주변으로 흡수하면서 세계적 노예제 종료
 -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중심부 국가 내부구조 급변: ①탈농화 ②도시 프롤레타리아 ③사회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 (4) 혁명적 소요와 산업자본주의 세계경제 공고화(1914~)
 - 중상주의(또는 국가자본주의)로서의 러시아 혁명: 반주변 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권
 - 미국의 부상
 - 사회주의 확대로 대안적 지역의 필요성 증가: ①마살플랜 통한 유럽재건 ②미국 투자 위한 저수지로서 LA ③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탈식민화

3. 다수의제도들의 집합으로서 세계경제 --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브로델의 삼층도식을 강조해 둘 것)

(1) 시장들

- 자유로운 시장 아니며,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시장들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이윤이 높아지지 않음)
- 준독점을 시행할 수 있을만큼 힘을 가진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국가장치를 통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 선도제품의 등장, 수출입제한, 국가보조금, 세금감면, 특정 상품의 국가구매
- 반독점적인 성향: ①싸움에서 진 기업의 불만과 투쟁 ②세계시장 독점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도전
- 이 때문에 선도제품의 주기가 형성
- 독점을 향한 경쟁

(2) 경쟁하는 기업들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나 그 비효율성이 문제되면 다시 축소되었다가 확대
- 기축적 분업에 따라 중심-주변의 형성과 불평등 교환/ 약탈 등을 통한 부의 이전

(3) 하나의 국가간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국가들

- 반주변적 국가들은 이른바 보호주의 정책을 가장 공격적이면서 가장 공공연하게 펼치는 집단 -- 하향추락하지 않기 위해
- 헤게모니 국가는 자유무역 추구

(4) 가계들: 계급/신분과 더불어 노동의 구체성 형성

- 수입의 공유
- 다섯가지 수입원

①임금소득 ②세계활동 ③소상품생산 ④지대 ⑤이전지급(transfer payment)

- 프롤레타리아 가계와 반프롤레타리아 가계(임금소득 비율이 50%를 넘는가 기준)
- 프롤레타리아화는 ①노동자의 임금상승 압력과 ②유효수요 창출 위한 일부 자본가의 시도의 결과
- 프롤레타리아화 자체가 투쟁의 장소임
- 가계는 '노동자' 경계 설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장소: 노동의 영역을 생산과 재생산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됨

(5) 계급들

- 계급은 가계를 통해 구성됨
- 노동상품화의 전일화 과정이 나타나는 것 아니다(임노동, 농노제, 노예제의 병존 가능)
- 맑스주의에서 계급 통일성의 신화(①빈곤화의 공동조건에 의해 ②생산의 사회화의 조건에 의해 --> 프롤레타리아트 내부의 개인별 차이와 집단의 차이가 소멸한다는 환상[『공산당선언』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그 비판의 계기는 오히려 엥겔스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아일랜드 노동자의 이주가 가져온 노동자 내부의 분할의 효과 --> 자본의 일반성에 대비되는 노동의 구체성이라는 테제

* 제약된 프롤레타리아화

- 역사적 자본주의 이전 체제: 대부분의 노동력이 고정되어 있다(농노, 노예제처럼) --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
- 노동력의 상품화=프롤레타리아화(프롤레타리아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프롤레타리아화가 반드시 고용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임금은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까지 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일한만큼의 대가이다. 어떻게 측정하는가? 얼마만큼이 일한만큼인가? 부가가치인가? 부가가치를 전부 지불하는가? 그럼 이윤의 원천은? 기계에서? 기계가 일하는가? 감독노동이 더 우월? 어떻게 측정하는가?

--> 실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즉, 일하는 시간 + 일하지 않는 시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사회적' 기준에서 결정.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

- 프롤레타리아화가 높을수록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임금은 올라간다(왜? 다 돈내고 해결해야하니깐. 가사, 육아, 교육, 복지 등 모두 다)

-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놀라운 것은 프롤레타리아화의 속도가 아주 지체된다는 점이다(노동력 상품화라는 특징과 제한된 프롤레타리아라는 특징이 양립. 그러나 제한적 프롤레타리아화는 노동력 재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 반프롤레타리아가 대부분(그리고 이런 생계 운영 단위는 가계 household이다). 가계 내에 어떤 개인은 프롤레타리아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주부, 아동, 노인)이 혼재하여, 공동수입 단위가 되고, 이들의 무보수노동이 저임금을 보완하는 반프롤레타리아 가계가 형성된다.

- 가계는 임금공유 공동체

* 생산적 노동/비생산적 노동

- 이런 가계구조의 맥락 속에서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이 구분되어, 화폐취득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된다 (가사노동, 육아 등은 중요하지 않는 노동으로 분류됨. 생계를 위한 부업 농사도. 노인의 노동도 소일거리로) --> 자본주의와 더불어 심화

- 이는 동시에 성차별주의를 제도화한다: 성인 남성이 '빵을 버는자'로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위치로(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지위인 전업주부)

- 반프롤레타리아 가계의 노동자의 최저임금선은 프롤레타리아화가 일반적인 사회의 최저임금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 기업가의 입장에서 반프롤레타리아 가계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 자유노동과 강제노동의 결합이 자본주의의 본질

- 노동력 재생산 문제와 기축적 분업 재개념화(상품사슬 등의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성

* 노동자의 지배적 형상의 전화의 필요성의 문제

- 재생산 영역을 포섭해 들인 이후, 그 다차원성의 출현 문제

(6) 신분집단들(status- groups : 동일성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바)

- 근대 국민국가 내 주체화의 층위들

- 가계는 기본적 사회화의 단위 역할(체제의 유지를 돕는다)

- 신분집단의 정체성: 국적, 인종, 종교, 종족적 기원, 성적 지향성 등

-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인종주의/성차별주의)가 섞여서 동시에 작용

==> 계급적 정체성의 문제와 '프롤레타리아 형성'의 정세적 계기의 복잡성,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내적 분할의 문제

(전지구적 차원에서 세계부르주아지와 세계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이라는 논지는 점차 약해짐)

* 중심부와 주변부의 분할

- 생산과 국가 양자의 측면에서 고이윤 부문을 독점한 국가와 '자유경쟁' 부문에 종사하는 국가사이의 분할이 나타난다 -- 전자의 고이윤은 후자의 저가공급에 기초한다 (농업중에서도 상품농업과 곡물, 공업과 농업, 자본집약적 공업과 노동집약적 공업, 첨단산업과 일반제조품, 금융과 제조업 등으로 형태는 변화)

- 중간에 반주변부가 존재 (동아시아): 이중적 특징 -- 앞서 우리가 박헌채 선생의 자본주의 발전유형론을 다룰 때 ‘식민지 종속형’에 대해 언급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하위 분류가 중요해 진다: 특히 80년대 들어서 제3세계의 두가지 길로의 분화가 나타남 : 미국 소비시장 지탱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동아시아적 길의 의미)

IV. 국가

1. 국가간 체계

- 위의 독점으로서의 자본주의관에 연결되는 역사적 사실
- 자본주의는 본질상 국경이 없다(세계화의 신화). 그러나 자본은 국경이 있다 -- 더 강한 국가의 후원을 받고자하는 자본들간의 경쟁은 민족국가들사이의 상호견제의 메카니즘을 형성
 - > 너무 강하지도(자본축적을 방해할 정도의 부담과 몰수를 수행할) 너무 약하지도(자본축적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국가들의 체제 형성
 -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한국가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을 통해 제어
- 이 틀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세력균형’이라는 방식으로 형성됨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일정정도 제한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장)
 - > 외교와 국제법, 국가간 조약, 초국가적 기구 (이른바 ‘주권’의 탄생 -- 실체는 침해됨)
- 현실에서 국가들간에 위계가 존재: ‘헤게모니’와 중심/주변
 - 직접적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 장기의 더 큰 발언권 지니지만 정당한 권위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 아님: 세계제국이 아니라 세계경제 내의 헤게모니 (‘장기세기’)
- 전쟁과 세계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을 규정해 줌

2. 근대국가의 특징: 국가간체계 속의 이른바 주권국가

- 주권: ①대내적: 국경 내에서 국가가 분별있다고 여기는 어떤 정책도 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법도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일을 하는데 있어 국가 내에서 법에 대해 불복종 권리를 지니는 어떤 개별적, 집단적 구조나 하위구조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 ②대외적: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는 체계 내의 다른 어떤 국가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권위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 > 실제로는 침해받는다. 그러면 왜 주장되는가? (세력균형의 메카니즘/국가 폭력 독점의 정당화로써)
 -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북한은? 이라크는?)
- 세계적 차원의 국가형성 과정은 국가형성과 해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심의 강화와 주변의 약화(해체)가 맞물림 (비중심부의 ‘민주화’라 부르는 현상도) --> 요소론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3. 국가의 역할: 자유시장으로부터 보호

- * 시장의 작용 외부에서 기업가들이 축적된 자본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 도둑질, 몰수, 과세

(1) 도둑질에 대한 방어

- 사설 보안체계에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치안역할을 공공의 수준에 이전: “보호지대”

(2) 몰수

- 제국에 의한 몰수와 사회화: 실제로 그 방어는 재산권의 법적 보장으로 보호됨

-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적 단절의 방식

(3) 과세

- 자본가는 합리적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과세가 대자본가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들에게 잉여가치가 환원되는 한 방식이므로

* 자본가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서비스 (또는 이 기대가 축적될 때 축적이 지속됨)

(1)자유시장으로부터의 보호

가) 법적 제약: 독점의 선포나 금지, 쿼터. (수입/수출 금지, 특허--지적재산권--)

나) 비용의 분담: 하부구조의 투자. 손상의 복구비용의 면제: 하천오염 등 생태문제

- 여기에 더하여 강한국가의 기업가는 특별우위를 지닌다.

다) 독점구매자: 군수산업 등

--> 밀려난 자들의 저항은 늘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로 등장(애덤 스미스 --> 중상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을 옹호)

(2)질서의 유지/폭력의 적절한 사용: 무력과 기만 그리고 양보를 결합

- 자기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의 역량을 제약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재분배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완화하려 노력하는 것

-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 경쟁국이 국가기구의 보호장치에 호소하지 않도록하는 방어기능

- 국가의 힘의 측정 기준: 관료집단이나 군대크기 아니라,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 축적된 자본의 국내 집중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장기간의 실질적 능력 (적대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능력, 자국에 유리한 규정들을 제정하되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나라 노동자들을 억압하되 경쟁 상대국들이 이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능력) -- 국가 힘의 참다운 척도는 중기적 경제적 성과에 있다

cf. 전쟁은 왜 일어나며, 그 결과 어떤 성공을 거두는가 (특히 세계전쟁. 1, 2차 대전)

- 공공연한 폭력의 사용은 국가의 취약함의 징후이다

(3)노동력의 관리:

- 노예제 유지와 폐지 등 전통 생산관계의 개편, 토지 개혁.... --> 노동력 상품화를 증대시키는 법률. 임노동 종사의 강제화 (노예노동, 공적 노역 의무, 계약제 강제노역 등의 합법화/불법화)

-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 제한도(거주지 제한, 친족집단의 복지책임 등)

- 임금 수준의 통제, 노동법(노동시간, 근로조건, 노동자 단결의 조건과 단체 행동의 제약)

- 이는 국내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이기도: ①노동자 임금에 대한 국가의 압력-->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부르조아로 하여금 노동자에게서 가치를 빼앗게 한다 ②생산품 교환가격에 대한 국가의 압력-->한 부르주아로부터 다른 부르주아로 가치가 이전

(4) 징세

①공적 보조금(다양한 개발비용도 포함). 개발 후 성과는 기업의 것이 된다(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예)

②징세를 통해 거액의 자본 집적하고, 이것이 부정의 온상, 횡령의 쉬운 목표가 된다 -- 사회적 자본축적의 주요 통로가 됨

③이윤은 개인이 차지하지만 위험부담은 사회가 진다 (부유층에 유리한 부의 재배분). -- 소위 도덕적 해이의 실제(국내적으로 재벌의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된 IMF)

- 이를 '사회적 간접자본'의 건설이라는 말로 은폐

기초에너지, 운송, 정보전달 기반시설 투자는 전적으로 정부투자 --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만,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다

--> 비용의 외부화: ①유독성 물질 배출비용 ②자원고갈비용 ③교통비용

- 자본의 축적 그 자체를 위한 끝없는 자본축적을 통해 당장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가? -- 국가문제의 핵심: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게할 지렛대를 찾는다 --> 그 지렛대가 바로 국가구조

==> ①국가없이 자본축적은 불가능하다(자유주의 논의와 달리 본래부터 유기적으로 결합)

②강한 국가란 자기 국가내의 부르주아가 원하는 규칙들(생산관계 통제 규칙/ 국경내 및 국경간 유통 통제 규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있는 국가

4. 헤게모니

- 헤게모니 규정: 헤게모니 국가이 기업이 농업 및 산업생산, 상업, 금융에서 모두 더 효율적인 경우: 그 출현과 지속기간은 앞에서 이야기한 순서 (아리기의 규정과 차별성)

- 헤게모니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순서로 반복되었다

- 헤게모니를 세계제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실패(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국가들: 세계제국적 팽창에 대해 자본이 적대적, 대항 연합이 형성 -- 스페인 제국, 나폴레옹, 히틀러)

- 헤게모니 형성에 등장하는 '3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독일과 미국 사이

- 헤게모니의 지속 불가능성: ①유지비용 증가 ②추격자들의 후발자 우위와 무임승차

--> '제국적' 무력의 사용은 헤게모니를 손상시키며, 헤게모니의 약함의 징표이다

V. 자유주의와 반체제운동

1. 세가지 이데올로기 -- 프랑스혁명의 결과

(1) 보수주의

- 인간이 도덕적 능력에 대한 비관주의적 시각에 뿌리 둠: 기존제도가 더 낫다. 민중에 대한 불신

- 위계적 구조를 신뢰(전통적 제도들 신뢰: 군주제, 교회, 가족;가부장제)

-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능한 느린 변화를 선호

(2) 자유주의

- 나폴레옹 등장으로 프랑스 혁명 변질 --> 나폴레옹 패배이후 신성동맹이 지배 --> 구체

제로 복귀 가능성 --> 이에 대한 반발로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등장

-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를 신봉
- 자연적 위계를 부정하지 않지만 세습적 위계는 거부
- 관리된 개혁을 주장. 이를 결정할 것은 전문가 집단

(3) 급진주의

- 1848년 혁명의 산물
- ①최초의 진정한 사회혁명(민중의 대거 등장) ②‘민족의 봄’
- ‘반체제 운동’의 출현

(4) 보수주의의 쇠신과 급진주의의 변신, 자유주의의 현실화

- ‘계몽된 보수주의’의 등장 (1848년 위협을 순치하려는 노력 속에서)
- 급진주의는 조직을 추구 (당조직)
- 자유주의는 대중을 장악하려 시도
- 자유주의의 ‘자유국가’론의 수립: ①선거권과 교육기회의 확대 ②노동의 보호와 사회보장
- ③민족의 동일성의 형성
- 이 프로그램은 1차대전기간에 수행됨
- 이 프로그램 시행은 자유주의정당이 반드시 주도한 것 아니다
- 특히 민족 동일성 형성은 위험계급 이끌어 내는데 중요함(순치하는데)
- 20세기 들어 ①민족자결권과 ②발전주의는 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중요함

2. 반체제운동의 전략적 쟁점

(1) 효과적인 중기적 전략은 무엇인가

- 국가의 이용과/포섭의 딜레마
- 두단계 전략의 문제(국가권력 장악과 변혁이라는 2단계)

(2) 다른 반체제운동 중 누구와 어떤 식으로 연합해야 하는가

- 왜 ‘반체제’인가: 어떤 운동도 수미일관하게 반체제인 적은 없었다는 주장(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생태운동 모두)
- 반체제운동의 수립 가능성에 대한 낙관주의에서 최근에서 난점의 지적으로 이동
- 반체제운동에서 프랑크스혁명 정신으로 복귀(egaliberty 자유-평등 테제의 수용: 발리바르의 것)

3. 국가, 발전주의, 민족주의를 통한 포섭

- 국가를 통한 사회적 응집력과 민족주의 -- 국가주의와 발전주의
- 민족주의: 누가 ‘민족’인가 -- 국가 내에 거주하는 누군가는 배제(외국인 노동자)하면서 국가 외에 있는 어떤 이들은 포함(해외 동포중 누군가. 또는 다른 국가 하에 있는 소수종족)
-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결합: ‘종족체’(ethnicity: 문화적 규정)의 문제 -- 인종주의(그리고 성차별주의)는 노동력의 차별적 대우를 통한 포섭에 중요한 역할 (모두에게 사회적 임금

을 지급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논리)

4.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틀로서 근대 사회과학

-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근대사회과학의 과학주의 -- 과학/개입/진보의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는 관리된 진보, 그리고 그 매개로서 국가권력이라는 틀을 지닌 논리: 이를 통해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를 포섭 -- 전자는 어쩔 수 없이 변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되 그 속도를 늦추려 했고, 후자는 급진성을 국가적 틀을 통한 관리된 변화의 틀 속에 수용하는 대신 그 속도를 가속하려 했음
- 정치/경제/사회라는 분화의 틀과 거기에 조응하는 세가지 학문
-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시간을 넘어서는 법칙정립적 학문이라는 구도
그에 대한 반정립은 법칙 없는 역사학과 인류학
(비유럽은 인류학[‘역사없는 민족들’]과 동양학[고도문명의 민족들]로 연구)
- 이를 넘어서는 단일사회과학운동으로서 세계체계 분석: 목표는 ‘역사적 사회과학’(브로델의 장기지속에 기반한 전체사의 관점. 동시에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며, ‘경향적’ 법칙과 ‘마주침’의 역사를 강조하게 될 것) [알튀세르는 맑스의 과학을 새로운 ‘역사과학의 대륙’이라고 지칭]

5. 반체제 운동의 새로운 전환으로서 68년

- 파리에서 뉴욕까지, 이탈리아, 일본도. 프라하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곳곳의 제3세계서 (LA와 인도네시아)
- 유럽사민주의/ 동유럽 '공산주의'/ 신생독립국 정부 모두가 타겟이 됨
- 구좌파의 자유주의적 전제가 공격받음: ①점진적 진보(언제 달성?) ②국가권력 우선 쟁취 (국가는 민주화되는가?) ③엘리트주의(대중의 정치는?) -- ‘2단계’ 전략에 대한 대중적 환멸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순적 결합이라는 20세기적 특수한 상황
그리고 이는 1848년 이후 지속된 ‘당형태’의 역사적 위기라는 상황 (①민족을 단위로 함으로써 민족주의에 감금당하며 ②스스로 진리임을 자명하게 선언[그것이 어떻게 담보되는가?]하며 ③자기 운동 중심성 외부의 운동과의 연대를 맺지 못하는)
- 문화혁명의 두 구호를 생각해보라: ‘造反有理’ ‘砲打司命部’
(여러가지 탈주와 아우토노미아의 논자들: 문혁을 우회하고, 그리고 그 ‘revolutionary risk’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논의 발전 어렵다)
- ‘계급’과 절합되어야 할 모순들이 오히려 국가주의에 의해 억압된 현실들 (환원불가능한 차이의 문제: 페미니즘과 인종... 그리고)
- 국가와 당이라는 조직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운동들의 출현의 시대: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계속 새로운 유혹에 빠져들 (우리나라 환경운동: 각 기업에 기금 초청장)
- 외면적으로 보이는 개인 주체에 대한 중시: 사적소유의 지양으로서 개인적 소유라는 쟁점 (환원불가능한 차이의 문제, 자기자신에 대한 소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더 큰 상품화의 길로 나서는 ‘협상’의 길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각종의 ‘상품화’와 ‘소외’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들 (근본적 반근대적 성격을 담은)
- 포르토 알레그레는 새로운 돌파구인가?(반세계화 아닌 대안세계화 운동)
- 다시 ‘국체주의’가 문제로: “국체주의인가 야만인가?”

VI. 자본주의 탄생의 논점

1. 쟁점

- 출현시기와 장소
- 메커니즘의 초점: 상업자본주의인가 농업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는 논점에서 제외됨)

2. 1992년 논문의 논점 -- 문명적 설명에 대립하는 '정세적' 설명

- 1250년경~1450년경 나타난 '봉건제의 전반적 위기'의 산물
- 네가지 요소의 우연적 마주침: ①영주제의 위기 ②국가의 위기 ③교회의 위기 ④몽골의 붕괴

(1) 영주의 붕괴

- 경작자 감소-->지대감소--> 토지 유키 --> 농민 협상력 증가 --> 영주간 경쟁 격화 --> 상호 전쟁

- 전쟁으로 재정위기, 전시 생산/수익 감소/ 귀족 수 감소

- 자작농, 시장 생산 위한 사람 등이 유리해 짐

(2) 국가의 붕괴

- 1000~1250년의 국가 강화에 이어 국가의 쇠퇴

- baronical power 증가

- 수많은 정부의 파산

- 유럽에서 일련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소지역들이 재생

(3) 교회의 붕괴

- 자본주의 추구를 억제하던 것은 종교

- 경제하강기 영향으로 교회 수익 위기 -- 교회가 더욱 더 경제/재정 문제에 개입

- 이단 종파들의 출현 -- 교회 독립 추세 -->교회 독립이 교회를 부와 권력의 더 세속적 추구자로 만듦

(4) 몽골의 붕괴

- 지배계급 붕괴는 보통 외부의 정복에 의해 종료되고 재편

- > 공백 발생 (흑사병이 몽골에 전파 + 계승을 둘러싼 알력)

- '서구의 부상' 이전의 '동방의 몰락' (아부-루고드: 13세기 세계체계 존재 주장 -- 그러나 프랑크와 달리 이 세계체계와 16세기 이후 세계체계의 차이성은 권력의 대등성대 불평 등성이라는 점을 강조)

- 엄밀하게 기원문제는 아님: 정세 또는 조건의 설명 -- 메커니즘/과정의 설명은 아니다

3. 아리기의 비판: 비논점

(1) 비판

- 스카치폴/브레너 등의 비판의 문제점 있지만 남은 쟁점 두가지

- ①계급형성과정이나 사회경제적 구조를 세계경제의 중심-주변 지위로 환원해 설명하면 안 된다 -- 중심-주변 환원론 또는 콘트라티에프 주기 등의 설명을 중단해야 이론 신뢰 생긴다

②자본주의를 출현시키고 촉진/지탱한 경쟁 압력에 대한 이론적·역사적으로 합당한 설명 없이 세계자본주의 체계 출현을 설명할 수 없다

*아리기가 보는 윌러스틴 1992년 글의 한계

- 기원문제 해결 못했다 (조건들 서술했을 뿐)

- 돕 비판하지만 일국 내에서 농업에서의 분화라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영주제 붕괴 이후 상업영농의 우위가 네덜란드의 헤게모니 만들었다고 -- 장소만 네덜란드로 옮겼지 돕과 그리 다른가?)

- 이유: 맑스의 16세기설에 집착, 돕의 논쟁구도와 맑스주의 논쟁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함
기축적 분업과 분석단위 문제에 집착 [국가중심, 계급중심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 윌러스틴과 브로델 사이에 쟁점이 있다는 것이 은폐됨: 기축분업으로서의 자본주의(윌러스틴: 16세기)와 삼중도식으로서의 자본주의(브로델: 13세기)

- 윌러스틴 설명은 여전히 목적론적: 봉건계급의 절망과, 그 탈피위한 자본주의로 전환이라는 것만으로 설명 안된다

(2) 대안

- 세계 자본주의는 거대한 영토조직을 서로 연결시키고, 이 전체를 다른 '세계들'에 연결시키는 틈새에서 기원했다고 보아야 (유럽에는 이미 두개의 세계경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태리 북부 세계경제와 북유럽의 세계경제)

* 세가지 논자를 도입

①브로델과 베버의 결합: 이태리 도시국가의 자본주의 기원론(브로델) + mobile capital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근대자본주의에 기회 부여(베버)

②매팅리: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 아니라, 도시국가 체계에 배태된 틈새 자본주의 구성 --> 민족국가에 배태된 세계자본주의 체계로 이행으로 보아야

③맥닐: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개척한 국가간 정치·군사적 경쟁이 근대 세계체계의 극단적 팽창욕구를 탄생하고 지탱한 기술적·조직적 개선의 주요 원천임

--> 여기서 경쟁 압력은 국지적이고 정세적 아니라, 구조적·체계적

- 15세기 지중해 세계경제에서 시작: 브로델의 상업자본주의론 수용 (농업자본주의와 중심-주변 문제 비껴감)

- 그러나 이는 전사를 문제로 남김 (이 도시국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출현?)

- 여기서 형성된 고도금융이 유럽의 증폭된 국가간 갈등에 자금을 지원하여, 자본주의 출현 가능한 틈새를 확대하기 시작 -- 자본주의적 혁신의 논리에 더 초점 (윌러스틴이 '순환'과 반복에 더 초점을 두는 반면에 아리기는 내적인 '전환'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을 '혁신'의 논점[슈페터]으로 동원 -- 윌러스틴은 그 때문에 반복에서 갑자기 비약해 장기적 추세에 따른 '종언'으로 이탈하기도)

VII. 윌러스틴의 한계

* 강점은: unthinking에 있다(그래서 일반화하는 논지있는 책중에서 『사회과학의 탈피』가

가장 흥미롭게 읽힌다 -- 전제들의 전복

1. 일반화된 논의의 비약

-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화된 논의의 한계
- 특히 사회주의 시기의 문제

2. 사회주의 시기의 과도한 단순화

- 체제로서가 아니라 경향으로서의 변화

3. 자본주의 내적 동학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결여

4. 지역적 차별성과 시기적 차별성에 대한 약한 관심

- 19세기와 20세기의 통치방식, 축적구조에 대한 관심이 약함(공간적 분할 일반과 자유주의에 의한 포섭이라는 정치적 틀이 중심)
- 중심과 주변의 강조가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 차별형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음
- encompassing comparison 대 incorporating comparison의 예

5. 노동의 '실질적 포섭'의 문제를 정치적 포섭으로 대체

- 분배를 넘어 생산으로 들어가는데서 한계
- > 생산의 영역을 장악한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의 약점(브로델과 연관 + 농업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의 집중)

--> 국가들 사이의 경합과 정치적 형태로서의 반체제 운동의 한계, 그리고 자유주의의 문제에 과도한 초점. 여기서 장기적 추세로 비약 (최근의 분석도 지정학과 지구문화, 그리고 근대사회과학에 초점: 공백의 문제) [스카치폴의 비판처럼 국가에 대한 경시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문제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문제일 수 있다]

- 이는 반프롤레타리아트 논의의 강점의 이면임:

자유노동은 중심부 국가에서 숙련작업에 적용된 통제 방식/ 강제노동은 주변부 지역들에서, 이 두 방식 결합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세계체제』 I-198쪽).

- 관계론적 접근의 대가일수도: 아직은 지구 대부분은 임노동 아님 (그럼에도 특정 시기 이후 어떻게 삶의 형태가 전환되는가의 질문 남음)

- 공간의 문제(세계적 차원에서 중심-주변, 일국적 차원에서는 도시-농촌 공간의 확대와 축소) 강조가 강점이나, 그 공간의 내적 재편과 관련된 문제는 약함

- 단지 작업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에서 노동의 실질적 포섭과 이것의 재생산 영역으로의 확대가 의미하는 바 (네그리가 제기하는 비물질적 노동과 실질적 포섭의 문제 또한 과도한 일반화와 잘못된 전거에 기반하지만 문제제기 차원으로)

--> 실버 책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지만 핵심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6. 장기추세의 비약

- 로자의 입론의 흔적
- 영국-->미국자본주의 이행후 현재의 특징: 미국자본주의는 반드시 '전지구적'이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지님 -- 선별적 조정과 포섭의 가능성

- 특히 카오스이론과 나비효과에의 문제

<제 3 강> 헤게모니 순환의 역사: 지오반니 아리기

I. 세계체계 분석 내부의 비판

1. 윌러스틴/ 브로델의 논지 비판

- 순환의 이론적 설명의 문제: 콩종크튀르 규정을 둘러싼 이견: 콘드라티에프나 로지스틱스, 장기추세를 설명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이것은 장기 가격변동 관찰에 기반해 불확실한 이론적 근거에서 경험적 구성물로 만들어진 것)

-- 자본주의에 특수한 순환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①가격 변동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관찰됨 ②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자본가 사이의 경쟁의 치열함 여부에 따라 이윤과 자원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은 상승/하락 모두 가능

--> 대신 체계적 축적 순환을 제기

- 중심-주변 환원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채택/ 동시에 계급환원론적 설명도 의도적으로 회피 (그러나 분석 속에 그것이 부재하는 것은 아님) [『자본』서술의 전략과 비교]

2. 역사적 자본주의

- 일정한 순환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구도와 과거 구도의 결정적 차이를 동시에 강조(네그리는 아리가 ‘영원회귀’론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리는 자신의 강조점이 연속보다는 ‘차이’에 있다고 본다): 체계 총량의 증가(더 큰 제국적 규모), 과거의 유지 속에서 새로운 조직원리의 형성, 계급과의 관계, 기업의 형태, 국가들 사이의 관계 변화

- 미리 예견되어 있지 않은 길

--> 특히 세계경제와 국가간체계의 관계 사이의 모순 때문에 그에 따라 상이한 궤적이 발생

- 체계적 위기로부터의 돌파구의 단초(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와 새로운 헤게모니 형성 사이에서는 필연적 관계 없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독점, 영국에게 인도, 미국에게 냉전은 내적 필연성 아니었지만 그것 없이는 헤게모니 불가능

- 그러나 그러한 궤적 형성은 ‘내적’ 모순의 결과: 자본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판다(자본은 자기 자신의 한계이다)는 논지를 인용

- 특히 ‘금융화’ 국면으로 종결되면서 국가간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동학에 강조점

* 『장기 20세기』의 영향

- 적극 수용: 하비의 『신체국주의』 (‘강탈에 의한 축적’)

- 입장 전환 계기: 켈리니코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에서 기본 구도 수용 (제국주의 대결로 복귀라는 정세관과 충돌함)

- 하트·네그리에게서 반론의 전거(부분수용): 논점의 오독

3. 윌러스틴의 아리기 평가 (1995년 JWRSR 글)

- 맑스와 슈페터를 섞은 분석임

- 계급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아리기도 인정, 「맑스주의 세기...」와 실버의 작업 등으로 연결 + 20세기와 19세기의 차이를 노동에 대한 포섭에서 찾는 방식으로 나중에 보완

- 정치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 좌파나 우파, 이데올로기 같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더 브로델적, 더 플라니적 측면임)

- 세계경제 구성에서 중심-주변 틀이 보이지 않음: '체계'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 분석하는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 (위로부터의 조직화 -- 외곽으로 갈수록 그 규정력은 흐려질 수 있음: 그 효과로서 분석 : 윌러스틴에 따라붙는 중심-주변의 '기능주의' '목적론'을 회피하려 함[앞서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과제는 남음

[계급과 중심-주변 문제는 아리기도 『장기 20세기』 서문에서 지적: 초점 좁힐 때 생기는 문제로 --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감제고지'인 축적의 체계적 순환이 초점]

- '체계의 카오스'에 대한 상이한 그림: 윌러스틴의 장기추세를 받아들이지 않음 (윌러스틴은 '체계의 카오스'는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 한 번 뿐이라고)

*계급과 '사회구성체' 문제에 대한 추가

- 아리기는 윌러스틴의 중심-주변 총체화의 함정에 벗어나려 함: ①윌러스틴의 총체화 논지는 '포괄적 비교'라는 관점에서 local한 변화를 체계의 효과로서 설명 ②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를 지주문화로 설정(그 지배효과의 차별성, 이데올로기적 주체 형성의 차별성에 대한 취약함, 운동의 형세에 대한 차별성의 해석의 난점도)

-->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세계경제/국가간체계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구성체'라는 문제설정의 부분적 복원의 필요성(1국적 구도에서 벗어나): 계급형성과 재생산이 진행되는 차별적 공간의 형성과 효과라는 문제 (노동계급 구성의 구체성) -- 자유주의라는 공동점 있다고 해도, 그 차별적 조건(그것의 구체적 형태의 현시화에서 여타의 이데올로기 자원과의 절합형태들)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의 특수성이라는 문제도]

ex)프랑스 인종주의와 한국 사회의 상이서: 물론 중심-주변적 구도도 작용(더 성차별주의적)

--> 자본 재생산의 공간이 전지구적이라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 주체형성의 기본적 공간은 '사구체'로 지칭되는 그보다 작은 공간일 수 있음(반드시 국가와 일치하지는 않음)

- 아리기/실버가 윌러스틴의 '포괄적 비교'와 구분되는 '통합적 비교'의 방법을 강조하는 맥락: 아리기는 중심-주변 총체화 벗어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그리고 이것에 의해 구조가 형성되는) 동학을 설명하려 함

- '정세'에 대한 맑스와 브로델의 유사성의 끝: 둘 다 중기적 시간대를 공유하지만, 브로델의 conjuncture는 여전히 세계시장과 동일한 공간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중기적 성격.

그에 비해 맑스와 맑스주의의 '정세'는 '불균등 발전'에 의해 표상되는, 상이한 공간 속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조건들의 절합과 그 효과를 지칭(콘드라티에프라기보다는 '세력관계'라는 표현 속에서 등장한 것)

-->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논의(19세기의 단절점. 그리고 특히 적대의 문제: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로서 자본주의): '실천'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에서 근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의 '파멸적 효과'

II. 이론적 배경: 『장기 20세기』

1. 아리기의 연구사

(1) 개인적 이력

- 1937년생 (윌러스틴과 7살 차이)

- 이태리 밀라노 출신의 경제학자(사회학자에 재직). 아프리카 로디지아 등에서 연구(67년 로디지아에 대해, 73년 아프리카 정치 경제에 관해 저서 : 윌러스틴과 유사한 시기의 활동)와 운동에 관여 60년대에. 69-79년 이탈리아에서 교수. 1979년부터 빙엄튼에서 활동. 1998년 이후는 JHU.

(2) 연구 초점

① 제국주의론 재평가

- 1978년 『제국주의의 기하학』
- 문제점: a)미국이라는 변수 b)카오스 상태
-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인가?: 영국 헤게모니에 대한 내적 경쟁 모델 + 미국의 등장으로 새로운 모델로 성공 못함
-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단계의 질서인가: order라기보다 disorder/카오스
: 아나키와 카오스를 구분 -- 중세 질서가 아나키, 베스트 팔렌은 ordered anarchy라고 봄
- 힐퍼딩 대 흡슨: 영국적 제국주의의 토대에 대한 분석의 취약점 -- 흡슨은 해외로부터의 공물유입이 영국 제국주의의 토대임을 강조 (힐퍼딩은 제국주의 시대 본질을 놓침)

② 반주변부

: 반주변부 규정의 실증적 분석 (상승이 매우 예외적임을 보여줌)

- 발전주의 환상에 대한 분석

③ 세계체계와 노동

- 「맑스주의의 세기, 미국의 세기」라는 글에서 출발해 세계노동 연구작업집단을 이끔 :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임
- 실버 책이 그 산물의 하나

④ 헤게모니 순환

- 『장기 20세기』와 『Chaos and Governance』에서 다룸

⑤ 동아시아

- 맑스의 장기세기를 벗어나 동아시아의 장기세기를 다룸(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작업): 하마시타 다케시와 마크셀던과의 공동 작업
- 헤게모니 이행의 새로운 동학과 연결되기는 함

2. 동원하는 이론적 배경

(1) 맑스주의

- 자본 순환 도식 MCM'
- 맑스 축적론에서 TRPF의 계기
-- 관심의 세계적 확장
-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 단계라기보다 헤게모니 이행 과정의 교란과정/체계의 카오스
- 특히 영국의 세기 등장 이후의 축적의 변화

(2) 브로델

- 상업자본주의와 이탈리아 자본주의 기원
- 금융적 성숙과 가을의 표지

- 변신성

(3) 폴라니

- 이중운동과 자기조정적 시장경제

(4) 슈페터

- 경쟁을 통한 혁신

(5) 맥닐

- 진정한 세계사라가는 윌리스틴의 평가

- 전쟁의 산업화 (『전쟁의 세계사』)

-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개척한 국가간 정치·군사적 경쟁이 근대 세계체계의 극단적 팽창욕구를 탄생하고 지탱한 기술적·조직적 개선의 주요 원천임

- 국가간 군사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

(6) 그 외

- 베버의 자본주의론 (이미 도처에 존재하던 자본주의)

: mobile capital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근대자본주의에 기회 부여(베버)

- 매팅리: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 아니라, 도시국가 체계에 배태된 틈새 자본주의 구성 --> 민족국가에 배태된 세계자본주의 체계로 이행으로 보아야

III. 『장기 20세기』 분석의 기본 개념들

* 이 책의 제목은 『장기 20세기』이지만, 장기 20세기만을 다루지는 않고, 15세기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을 다룬다 -- 그럼에도 그 제목을 단 이유는 현 시기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비교의 틀의 확장으로 읽어야 (현 시기 이후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개념 도구의 마련)

- 후속작업으로 RWG의 작업인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①고도금융과 지정학 ②기업형태 ③사회적 기원 ④서구 헤게모니

1. 체계적 축적순환과 국가간 체계

(1) 반복되는 것은 새로운 조직원리에 따른 전지구적 생산/상업의 조직 네트워크의 형성 (상승과 하강의 국면을 갖는다)

- 반드시 산업에 집중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이전헤게모니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윤을 하락을 반전시킴

- 세계적 규모의 축적체계

(2) 조직혁명

①보호비용의 내부화 (네덜란드 해군의 우위)

②생산비용의 내부화 (세계의 공장)

③거래비용의 내부화 (법인자본주의)

2. 자본주의와 영토주의 경향

- MTM'과 TMT'

- 자본주의에서 양자는 통일로서 존재.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의 제국은 영토주의의 논리가 우선시 됨(무한 팽창하지 않는다: 명나라 제국의 예 -- overstretch로 가지 않음)

- 자본주의적 팽창과 영토주의적 권력 논리 대립의 모순이 새로운 주도적 자본가에 의한 세계정치-경제 공간 재조직 통해 새롭게 해소됨

- 베니스는 이후 영토적 자본주의 국가의 원형 (국가독점적 모델)

제노바는 이후 세계 규모에서 비영토적 자본축적 체계의 원형 (코즈모폴리탄 자본주의의 모델)

3. 헤게모니

- 도덕적 지도력으로서의 헤게모니: ①'일반이익의 추구' ②다른 나라를 자기 발전의 길로 유도

- 효율성의 상대적 우위라는 윌러스틴의 규정과 대비

- 헤게모니 이행을 보는 관점의 차이: 헤게모니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윌러스틴과 아리기 사이에는 헤게모니 사이의 이행의 동학을 보는 관점에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헤게모니의 교체를 상대적 효율성의 문제로 보는 윌러스틴은 헤게모니국의 기술적 우위가 외부의 모방에 의해 줄어들고 헤게모니 국가의 국내의 임금의 상승으로 임금압박이 발생하며, 헤게모니 국가의 체계유지 비용이 증대하면서 전반적인 효율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것이 세계전쟁으로 귀결되면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출현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아리기는 윌러스틴의 논지가 헤게모니 이행을 '외생적'으로 설명한다고 보는데, 아리기는 헤게모니국의 과잉축적의 결과 새로운 국가간 경합과 기업간 경쟁이 촉발되고, 국내외적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며, 세계적 권력구도가 새로운 형세로 재편됨에 따라 체계의 카오스가 발생하는 동시에 새로운 잠재적 헤게모니 지역으로 체계의 능력이 집중되고, 그 결과 새로운 축적체제와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체계가 새롭게 재구성된다고 본다.

4. 축적양식과 생산양식

- 축적양식: 끊임없는 자본축적으로서 자본주의 시기 전체

- 생산양식: 19세기 이후 추출, 제조업이 자본의 자기 팽창에 결정적이 된 시기
mode of production이기 때문에 production 없으면 논의 어려움

- 윌러스틴 처럼 체계 전체를 상정하면 체계 차원의 기축적 분업이 됨: 그러나 아리기식의 접근은 난점. 의도적으로 난점을 남겨 둠

5. 국가독점적/ 코즈모폴리탄적

- 제국주의 논쟁에서 독일형 모델이 국가독점적이라면 영국은 코즈모폴리탄적 모델을 대표
--> 미국은 그 양자를 통합하여 지양한 모델 (규제의 완화/강화라는 순환)

6. 실물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 그리고 벨에포크

- 하나의 순환은 MCM'. 여기서 MC는 실물적 팽창, CM'은 금융적 팽창 국면

- 실물적 팽창: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단일 발전 통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면들로 구성됨 (더 많은 생산, 무역, 고용, 팽창...)

금융적 팽창: 기존 통로를 따라가는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새로운 통로로 나아가는 근본적 재구조화와 재구조화가 발생하는 불연속적 변화의 국면들로 구성됨
이윤율 하락의 변곡점: 이자율 > 이윤율

7. 신호적 위기와 최종적 위기

(1) 장기세기의 세 시기 구분 (그림 10: MCM' 국면도 함께 설명)

① 새로운 축적체제 형성 (Sn-1 to Tn-1)

② 그 완전한 발전 (Tn-1 to Sn)

③ 금융적 팽창 (Sn to Tn)

(2) 두가지 위기

- 신호적 위기(Sn): 과잉축적 위기로서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 전환점

- 최종적 위기(Tn): 체계의 카오스에 돌입

- 전자가 후자보다 판별이 쉽다

(3) 체계모니 지속기간

- 갈수록 짧아진다. 반면 국가의 규모와 조직의 복잡성은 계속해서 증가

8. 체계의 카오스

이윤율 저하로 이윤율과 이자율이 역전되는 국면에 과잉축적 위기가 발생 --> 물질적 팽창이 중단되고 금융적 팽창을 통해 이윤율 저하를 만회하려는 시도가 등장

--> 투자지역의 이전과 금융적 교란의 발생 --> 결합지역에 유리한 조건의 형성과 잠재적 후보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 국가간체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체계의 카오스** --> 새로운 축적체제 하의 새로운 체계모니 국가의 등장

- 여기서 화려한 시절인 벨에포크가 개입됨

8. 벨에포크와 체계의 카오스: 그림 13~16

- 허스의 무역팽창의 수익증감론을 맑스와 결합

- 수익체증시는 경쟁보다는 협력/ 수익체감과 경쟁격화시 경쟁이 제로섬으로 감

- 이윤율이 변곡점을 지나면 상업적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 사이에 분기가 발생

CC'는 정상적 경쟁이나 CM'은 경쟁의 제약과 생산에서 자본의 이탈

--> 이탈한 화폐자본은 다른 생산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영토, 인구 점령에도 동원됨(국가형성/전쟁 형성에도 집중적으로 쓰임 --화폐 수익률 증가)

--> 벨에포크

- 그러나 분기가 시작됨: ①로컬 차원에서는 변동의 폭 내에서 작동 ②체계의 차원에서는 변동의 폭을 넘어서서 분기(팽창의 중단: 체계적 차원에서 변동 폭의 누적적 확대 + 비생산적 요인에 의한 중단과 지속의 반복)

- 최종위기와 체계의 카오스 발생하고 새로운 축적순환으로 넘어감

9. 전진운동과 후진 운동

(1) 영국

- 전진: 생산비용 내부화
- 후진: 이베리아 제국의 길(영토적 팽창) + 제노바(코즈모폴리탄 금융 자본주의) 통합
- 동시에 베니스와 네덜란드 앙트로포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의 통합

(2) 미국

- 전진: 거래비용의 내부화
- 후진: 네덜란드의 길(국가독점적) + 영국적(전지구적)
- 제국주의에 반대, 자유무역에 반대, 법인자본주의와 네덜란드 공인합자회사의 유사성

10. intensive와 extensive

- intensive: 네덜란드, 미국
- extensive: 제노바, 영국

11. 국가형성/전쟁형성/경제형성

IV. 네 번의 헤게모니 순환

1. 네 차례 순환

- ①제노바(15세기~16세기초) ②네덜란드(16세기말~18세기 전체) ③영국(18세기 후반~20세기초) ④미국(19세기말~현재 금융적 팽창 국면)

3. 헤게모니 교체의 세 국면

(1) 기존의 주도적 자본주의국을 병합하려는 시도

- 16세기 합스부르크의 팽창: 병합보다는 베니스-제노바 연합의 형성
- 네덜란드를 병합하려는 프랑스의 시도: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로
- 미국 단계에서 병합시도는 없었다고(그러나 히틀러의 대륙병합 시도: 이는 체계의 카오스 이후)

(2) 자본주의국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국의 부와 권력의 원천 차지하는데 집중

- 대서양을 둘러싼 경쟁
- 영국/미국길 모방한 독일과 국내적 영토주의로 나아간 미국

(3) 체계의 카오스 증가

- 네덜란드와 전쟁 승리로 영국이 헤게모니가 되지는 못함: 반란세력이 아메리카와 유럽대륙 전체에 영향 --> 자유무역 제국주의로 나아감
- 미국과 세계전쟁

3. 헤게모니 순환에 따른 구조의 변동

(1) 제노바/베니스에서 네덜란드로

-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자본주의 전사의 특징

①전쟁형성과 국가형성의 자본주의 체계

②세력균형 통한 보호비용 최소화

③전쟁상업화: 보호생산 산업에서 임노동관계 전개 -- 소규모 군사케인즈주의

④상주 외교망

- 그러나 이는 중세 유럽과 충돌하지 않는 틈새에 존재

- 유럽 미니제국 사이의 국가형성 둘러싼 갈등에 비용을 대면서 금융화

- 네덜란드가 베니스와 달라지는 점

①작동 규모의 확대(세계 금융망 통제)

②중세 질서와 전면적 충돌(충돌 세력들을 결집)

③전쟁 형성 능력 더 강력함: 군사조직/기술의 발전. 군사역량이 유럽에 평준화하여 세력균형으로

④국가형성 역량 강화: 더 절대적 힘을 보유

(2)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 유럽 밖의 과거 제국을 붕괴시킴

자본주의와 영토주의를 종합

- 정착식민지, 자본주의 노예제(신대륙), 경제민족주의(경제형성) -- 더 많은 사람을 국가형성/전쟁형성에 끌어들이

- 자유무역 제국주의가 등장

①새로운 국가군의 형성: 민족주의의 '민주화' -- 유럽 협조의 틀

②서구 식민제국 해체와 비서구로 팽창: 영토병합과 식민지 잉여추출

③새로운 세계정부 통해 자체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시장 형성

- 세계경제인 동시에 '세계제국'이라고

- 그러나 다시 식민지 정착인, 플랜테이션 노예, 도시 중간계급이 체계카오스의 한 요인으로 등장(영국 해계모니로 가는 과정)

(3) 영국에서 미국으로

- 열강 경합 직후에 체계의 카오스 발생(이전과 반대순서) -- 규모와 복잡성 증대

- 대륙적 규모의 영토국가의 출현(국내적 영토주의)

- 비유럽인과 무산자의 저항이 중요한 체계의 카오스 이끈 동학

--> 민족주의의 '프롤레타리아트화'

- 영토제국주의적이지 않고 자유무역주의적이지 않은 틀

- 자유무역 제국주의 아닌 쌍무적/다자적 세계 구도 (더욱 강한 통합력)

①미국이 세계화폐 통제

②가트에서 세계시장 형성이 정부 권한 하에 종속

③초국적 기업 내부 교역 증가(직접 투자 중요함)

- 미국은 자기조정적 시장경제 유토피아의 주 선동자이고 그 신념 확산의 수혜자이지만, 그 신념이 정점일 때도 자유주의 신조 고집하지 않았다 (오토센트릭한 특성 때문, global 무역 중개지 기능 수행하지 않았다 -- 실버&아리기)

* 기업의 형태와 규제에서도 시계주 운동이 작용함을 보아야

(1) 기업

- 소규모 가족기업(이탈리아) --> 대규모 국가독점형 기업(네덜란드의 공인합자회사) --> 분산된 가족기업 네트워크(영국) --> 거대 법인에 기반한 초국적기업(미국)

(2) 규제

- 네덜란드(국가의 독점) --> 자유무역(영국) --> 정부의 규제(미국)

V. 장기 16세기

- 상업자본주의로서 자본주의의 시작
- 네덜란드는 베니스와 제노아 방식을 결합: ①지역 상업을 벗어나 세계적 규모에서 이윤 극대화(제노아) ②보호비용의 내부화(베니스)
- 네덜란드의 특징: 'nation'을 형성 -- 과잉자본을 토지에 투자하여 주권국가를 형성 -- Orange(오랑예)가와 공식적 관계를 맺음 (war-making + state making)
- 네덜란드 성장요인/정책: ①유럽과 세계 상업의 중계무역지(entrepot) ②자본시장이 됨 ③공인합자회사
- 네덜란드 쇠퇴요인: 후발 국가들(영국/프랑스)의 중상주의 ①모방이 증가 ②국민경제 건설 나타남 (네덜란드는 대륙적 팽창하는 프랑스보다는 영국에 자금델 수밖에 없는 상황) --> 1740년경부터 고도금융으로 후퇴 -- 이 이후 영토주의는 자본주의적 권력기법을 '내부화'함으로써 목표 달성 가능 (민족국가간 갈등)
- 네덜란드는 영토주의를 자본축적의 원리에 종속시킴 (순수한 자본주의적 모델) --강점인 동시에 약점
- 네덜란드의 우위: 유연성, 영토병합 부담 없다
약점: 영토와 인구 우위에 있는 외국 기업가와 노동에 의존 --> 네덜란드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은 아시아 시장의 활력에 기반
- 네덜란드 하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의 안정성 형성의 결과: 그 때까지 유럽에서 상호 engagement에 쏟은 영토주의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이 네덜란드 상업/해양 우위에 대한 도전에 몰림 (작은 세계경제의 통제력 한계)
- 네덜란드 노동력 부족: 항해인력 부족
- 헤게모니 쇠퇴에 대해(서인도회사의 경쟁력 상실이 그 한 예) 영토주의적 논리로 대응하지 않고 빠른 금융적 변신으로 변환

VI. 영국의 세기

1. 영국의 우위

- 산업자본주의 신화의 문제: 일국적 구도를 버리고 전지구적 구도를 보아야 (그리고 경제 중심적 논리를 버리고 정치와 경제의 융합, 상부구조로서의 브로델의 시각을 살려야)
- (1) 전지구적 맥락에서 볼 필요
- 산업자본주의인가?: 전지구적 맥락에서는 오히려 상업적 제국주의라는 측면을 중시할 필요성 (네덜란드의 강점)
-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영국 자본주의: 팽창적 영토 제국주의가 필수적 요건

(2) 네덜란드가 생산비용 내부화 피한 이유

①점령비용 문제: 근대국가의 국가형성 필요함

②공업발전 만으로 세계적 영향력 획득 못함(베니스, 밀라노의 예): 세계체계로서의 역사적 자본주의의 기원은 공업과 결별

- 네덜란드의 장점과 약점: ①장점은 유연성, 영토주의 부담 없다는 것 ②약점은 영토와 인구 우위의 외국 기업과 노동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3) 생산비용의 내부화와 영국 제국주의

- 네덜란드와 경쟁에서 영국의 우위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생산비용의 저하를 실현 --> 생산부문을 국내에 유치(중상주의를 통한 실현)/ 유럽시장에 판매

- 동시에 저가의 원료 공급지의 중요성(+ 약탈을 통한 축적) : 식민지 개척(인도의 약탈) 및 식민지 경제구조를 원료공급체제로 전환(인도 면화 산업의 붕괴 --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이후 식민지는 다시 산업혁명의 성과물의 시장으로 전환

- 몇가지 상징들: ①공장 ②영국해군 ③전세계의 식민지 ④금본위제와 시티 ⑤국내: 생산요소의 상품화(대량의 노동예비군 창출) ⑥세계적 무역망

- 네덜란드의 '국가독점적 자본주의'로부터 가족기업 중심 체제로: 소규모 가족기업이 생산/유통/무역을 각기 분담

- 국제적 금융체계로서의 금본위제: 노동의 포섭의 필요성 적었기 때문에 20세기보다 훨씬 더 경직적(긴축을 통한 환율 안정)

2. 역사적 준비과정

- 헤게모니의 토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지: 현재 동아시아 헤게모니 이동에 대한 논점을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내의 변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짐

- 16세기말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토대가 마련됨

①고도금융의 민족화(파운드의 건전통화 기반 마련)

②통제된 산업 팽창: 사회적 안정성 도모하면서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 중상주의적 측면

③해군력과 국가형성

--> 그러나 네덜란드 우위 깨지 못함: 산업적이기보다 상업 중개 중심지가 중요함

3. 네덜란드 모방과 탈피

- 영국이 세계경제 지배자 된 것은 나폴레옹 전쟁기: 새로운 산업 팽창 가속화 한 것 아니라, 산업주의로부터 해외 상업/영토 팽창으로 전환한 것 (중상주의 성공 이후)

- 인도에 동인도 회사 설립: 네덜란드 경쟁되지 못함. (원거리 무역)

아시아내 교역이나 면직물 등을 거래 --> 영역 넓어 경쟁에 노출 --> 이윤 하락 --> 활동 확대(지역과 물품을) -- 영토적 정복의 필요성이 커짐 (해군력의 필요성이 네덜란드보다 커짐)

- 영국 동인도회사가 우위선 것은 인도 무갈제국 무력으로 해체한 결과(①대대적 공물 수탈 ②인도 면직 공업을 동인도회사 경영 위계 하에 집중적 통제에 종속)

- 그러나 동인도 회사 무역특권에 대한 분산된 기업들의 반독점 요구 거세짐(A. Smith): 경

쟁자들의 시장진입 요구로, 결국 영국정부가 1813년 인도 무역 독점 폐지, 1857년에는 인도를 '국유화' (인도 무역 독점 폐지 이후, 중국 차교역, 다음에는 아편교역으로 나아감 -- 다시 소규모 무역 기업들 도전에 직면: 1833년 중국독점권도 폐지) --> 영국형 '자유경쟁' 모델로

- 2차산업혁명은 영국의 영토제국주의 확장에 수반된 결과임
- : 1840년대 자본재 국내 시장 수익 감소 -- 영국의 일방적 무역 자유화가 세계 생산과 무역의 붐을 불러옴 -- 새로운 물질적 팽창 --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지구화
- ==> 팽창의 가속화 동력

4. 인도의 중요성

- 영국 헤게모니의 결정적 계기이자 상징
- ①플래시전투 승리의 약탈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남 ②인도의 무역흑자를 영국의 무역적자와 상쇄(금분위제의 장기적 지속 -- 아편전쟁도 한 예) ③인도를 원료의 대량생산지로 전환(면직물 생산 기반 붕괴시킨 후) ④영국의 자기조정 시장의 파괴 효과를 인도로 이전 ⑤인도의 내적 파괴로 인적, 자연적, 금전적 자원이 해방되어 세계적 운용에 도움을 줌 ⑥인도의 용병 이용해 해외 영토개척

5. 기계제 등장 이후의 변화: 특히 독일의 등장으로 가속화

- (1) 상업과 산업의 관계가 역전되고, 산업이 우위로
- 투자규모 증가
- (2) 시장의 risk 줄이려면 모든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즉시 구매 가능해져야 (토지, 화폐, 노동)
- (3) 자본재 산업의 독립성
- 불균형 확대(과잉설비)되면서 해외시장에서 수입/판매의 의존도가 높아짐
- > 돌파구로서 인도의 중요성 다시 강조됨

6. 헤게모니 쇠퇴와 금융화

- (1) 금융화
- 1873-96년 공황과 더불어 금융화
-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고도금융의 형성
- 벨에포크: 금융화 따라 자본이 금융부문으로 이전(고수익 모델) --> 다른 생산 기업도 일시적으로 경쟁압력에서 벗어남 (새로운 선도산업 전환 나타나지 않음)
- 노동계급의 희생과 소수부르주아지의 화려한 시절

(2) 모방의 증가

- 후발국가들이 영국의 산업혁명과 영토제국주의를 모방: 시장확대와 영토제국확대의 경합
- 프랑스/독일/미국 등
- 영국의 우위 상실과 1873년 위기 이후 영국은 금융적 팽창 국면으로 --> 금융자본의 투자처들 사이의 경합의 확대 (미국이 유리)
- 영국은 산업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힘들며, 생산의 팽창이 중단되고 금융화로 나아감

- 영국은 제국에서 1차산품 수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 필요가 적었다 -- 해외 이익 낚는 곳(주로 미국)에 투자
- 영국의 금융적 팽창 하의 금융 세계화의 팽창속도는 20세기보다 더 빠름(전신의 개발)(차이점은 뒤에서 논의)
- 전쟁으로 영국의 풍부한 자금이 점차 고갈됨: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역전됨

(3) 독일과 미국

①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길: 독일

- 해외 영토 개척의 한계 --> 내부로 확대/ 확대의 한계 -- 대외 팽창의 욕구('생활공간')
- 군수산업의 발전을 통한 중공업 중심 체제/ 수평적 통합을 통한 독점산업의 육성/ 국가와 독점이 융합한 금융과두제의 형성(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모델: 금융과두제와 식민지의 분할/ 재분할이라는 두가지 축)

② 법인기업을 통한 수직적 통합의 길: 미국

- 1890년대까지 독일과 유사한 길을 모색: 반독점법에 의해 수평적 통합 금지됨에 따라 수직적 통합의 길로 -->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한 대형기업의 형성
- 대륙적 규모의 경제와 라틴아메리카라는 배후지: 영토제국주의 필요성이 적음 --> frontier 개발이라는 형태의 내부 식민화와 인디언 절멸정책/ 국내 시장의 계속적 팽창
- 영국 금융자본의 미국투자의 증가
- * 헤게모니 전쟁으로서 30년 전쟁(1, 2차 대전)
- 이전처럼 해양국가인 미국이 전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물자 공급하는 혜택을 누림

VII. 미국의 세기

* 미국자본주의의 특성

(1) 그 자체로 세계적 팽창의 동력을 지니지 않는 자본주의 (19세기와 대비)

- 정부의 우위 하에서 세계로 팽창
- 선별된 지역만을 포섭하는 특성: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2)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가한 자본주의

- 19세기와 동일한 시장경제 아니다
- ①국가간 통제 하에 종속된 자유무역 원리
- ②사회복지 국가의 모델(케인즈주의 + 발전주의)
- ③국민국가적 틀을 강화한 정점의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주의의 동력 (그리고 그 위기)

1. 법인자본주의

(1) 법인자본주의의 특징

- 원료조달에서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거래비용의 내부화'를 달성
- 영토 식민지의 비용부담을 벗어난 TNC형: 자회사의 해외 진출을 통한 원료의 조달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경영자 자본주의): 산업과 금융의 분

리 --> 독일의 국독자형과 대조적 특징

- 특징의 정리

- ①속도의 경제(자본회전속도를 빠르게함으로써 이윤을 상승)
- ②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mass market의 출현)
- ③정보비용(시장과 공급원에 대한) 감소
- ④현금유입 증가 -- 이를 활용한 행정 조정 가능
- ⑤중/상층 경영진 위계제의 형성 -- 시장과 노동과정을 조절하고 감시
- ⑥해외진출 증가(초국적 기업 네트워크: 기업구조상의 우위. 영토확장 비용 제거, 내부거래의 가능성)
- ⑦기술장벽보다 조직장벽이 중요함
- ⑧경영위계제와 관료구조 -- 조직혁명

(2) 독일(과의 경합)

- 자유무역 불가능함에 따라 보호주의로 -- 수평적 통합의 추구
- 기술적 합리성: 과학을 산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그러나 부가가치 면에서 영국을 따라잡지 못했다(대신 성장 속도를 가속화해야했음)
Lebensraum의 한계 (영토적 확장의 한계/ 미국의 우위 부재)
- 영국의 안티테제에 머뭇/ 대륙의 지정학도 중요함

2. 뉴딜

(1) 미국의 우위 형성

- 1차대전의 비용: 영국의 자금 고갈. 미국은 ①종전 후 영국 투자한 하부구조를 헐값에 매입 ②거대한 전쟁 신용의 축적 ③전시에 대출금을 쉽게 상환, 영국은 파산국에 대출
- 그러나 세계화폐 관리 능력에서 영국에 뒤짐. 금융시스템 미성숙
--> 서구정부도 영국 중심 금본위제 복구에 신화 지님 -- 최종 위기 성숙 (1931년 영국 금본위제 붕괴)

(2) 뉴딜

- 금본위제의 동요: 영국이 먼저 포기 -- 국제적 금융체계의 붕괴
- 1929년 대공황: 고도금융에 의한 심각한 타격
--> 고도금융 통제가 안전으로 부각
- 1930년대 뉴딜: 일부 은행가/재무성/조직노동자/산업자본가 연합에 의한 뉴딜체제
--> 고도금융을 정부 통제하에 종속시켜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를 관리하고 중간계급을 포섭
-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한 은행 겸업금지 (고도금융 통제)
- 급진적 노동운동의 패퇴와 실용적 노동운동 노선의 정착: GM을 중심으로 '생산성 임금제'의 정착(슬로언주의) --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노동의 포섭과 대량 소비사회의 창출

3. 전지구적 확장

- 헤게모니 국가 형성을 위한 두 과제: ①전지구적 질서의 수립 ②국제금융질서의 수립

(1) 국제금융질서

- 브레튼우즈체제: 초안에서 이탈해 타협적 결론(미국의 요구 반영). 그러나 고도금융통제라는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

①자본 이동의 통제(고도금융에 대한 정부우위) ②금-달러 본위제 ③IMF/IBRD를 통한 위기의 조절

--> 초국적 관리제도 수립에 실패하고, 지배적 경제에 의한 국제금융질서의 관리 지배적 경제와 달러의 위상이 하락하면 이 질서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 내장

(2) 전지구적 질서

- 전후 세가지 질서의 기반: ①새로운 화폐체계 -- 브레튼우즈 ②새로운 폭력수단 -- 원폭

③UN 헌장 -- 국가형성/전쟁형성의 정당성 규칙

- 유럽의 안정과 소비시장 부활의 필요성: 유럽의 자본도피 막고 안정적 성장의 보장 필요 미국에 유동성이 집중되어 미국 물건에 대한 해외의 수요가 없다는 문제

- 그 자체 전지구적 팽창 동력 없는 미국 자본주의

- 마셜 플랜의 타협: 미국 TNC 진출 위한 사적 해외투자 확대의 방식

- 루즈벨트의 단일세계주의가 트루만의 '두 세계주의'로 정착: 냉전 구도의 형성

- 애치슨: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

(3) 국가간 체계의 변화

- 식민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경쟁의 지양

- 식민주의에서 독립국가 공동체로: UN

- TNC의 진출을 위한 친미 안정적 정부의 지원 --> 미국적 자유주의의 확장

- 그러나 UN 총회와 안보리의 이원화/ 발전과 종속의 이중성의 문제

* 미국 체제의 해체 저항성 (19세기와 차이성)

- 다자주의/쌍무적 구도: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에 대한 저항이 강력함

- 초국적기업 네트워크의 확대: 교역 단절의 가능성을 낮춤

- 군사력의 독점: 경합국가의 이탈을 억제

4. 전지구적 위기의 동학

(1) 위기의 표지들(1968-73년)

①군사적: 베트남전에서 고전

②금융적: 브레튼우즈에서 설립된 세계화폐의 생산 및 조절양식 유지하기 어려워짐

③이데올로기적: 반공십자군 정당성 상실

(2) 위기의 촉발:

① 유로 달러- 1968년부터 유로 달러시장 폭발

석유달러는 이 총량을 더 키웠음

② 후발 주자들의 추격

(3) 브레튼우즈 체제의 동요

① 미국의 생산성 저하와 이윤율 하락/ 쌍둥이 적자

재정지출/은행의 경쟁적 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내재화(베트남 전쟁으로 더 심해짐)

--> 생산성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달러가치의 저하와 금융자산의 가

치저하의 발생

② 유로시장의 형성과 영국을 중심으로한 금융자유화의 계속적 시도

③ 몽펠랭 협회(하이테크 등) 등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의 전파

* 브레튼우즈 체제의 와해 --> 고도금융의 재부상

① 변동환율제

② 공공채무의 증권화

③ 금융의 탈규제 및 자유화

(4) 1970년대 금융적 팽창의 계기들

- 금/달러 태환 중단(1971)

- 자본이동 통제 중단(1974)

- 뉴욕 주식시장 수수료 자유화(1975)

- 연기금 규모의 확대(ERISA: 1974)와 금융부문 투자의 증가

- 금본위제를 달러본위제로

①발권특권으로 결제문제 사라짐 ②외항경제 아니라는 이점(오일쇼크에 대해서도) ③평가절하 따른 수익의 우위

- 달러가 무상재 수준으로 늘어남: ①금융화의 동력 ②제3세계의 강화

(5) 볼커플랜과 레이건체제

- 1970년대 위기를 화폐발권의 특권으로 유지 --> 달러 신뢰성의 위기 (1978년경에는 현실화)

자본의 과잉공급상태 --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의 무상'의 자본이 발전도상국에 공급됨
석유달러로 자본공급은 더욱 증가

* 볼커 플랜과 레이거노믹스

①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이자율 인상 ②탈규제(특히 미국 은행) ③부채 증가 ④소련과 냉전 증폭

- 긴축화폐정책과 이자율 인상

-->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특히 재무성 채권)/ 미국이자율과 연동된 제3세계 채무의 증가 -->외채위기

* 레이건하의 이례성: '군사적-케인즈주의'에 따른 제 2차 냉전 --> 소련을 붕괴시켰으나,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확대 (클린턴 들어서 긴축정책 하에 해소 -- 이후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책 사용 불가)

- 제3세계 외채위기의 초래

- 클린턴 하의 '신경제'와 그 전지구적 적용 위한 재구조화 (금융위기가 규제조치 변경시킴)

VIII. 20세기말 벨에포크

1. 19세기와 20세기의 차이점

- 아리기의 유비라면 전진은 '재생산비용의 내부화' 정도, 후진은 영국의 분산된 조직형태를 복구하면서 금융중심과 영토적 중심의 분리한 경험을 모방할 수도 (아리기가 일본식 유연전문화 생산에 관심 끊지 않는 이유)

(1) 노동포섭의 문제

- 이전에는 사회갈등이 금융팽창 이후에 발생.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는 사회갈등이 금융갈등에 선행 --> 1970년대 경기침체가 디플레이션 대신 인플레이션 촉발한 요인 (또한 헤게모니의 지속 기간이 짧아진 이유) -- 아리기가 브레너 비판하는 주요 논점 (브레너 분석에서 정치의 과소)
- 현 금융화는 비서구 인민과 서구 노동계급의 결합된 요구 봉쇄하는 주요 도구(아리기&실버)
- 영국쇠퇴기 이중운동보다 더 자기조정 시장경제 제약한다는 시각: 금본위제 복귀가 아니라 완전한 폐기로 나타남 (19세기는 체계의 카오스가 금본위제 폐기에 선행,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는 반대로) (실버&아리기)
- 브레너 비판: 미국 헤게모니의 단기성과 빠른 하강은 정치적(미국헤게모니의 공고화)와 사회적(공산주의 봉쇄와 민족주의 순치) 부담에 따라 예상된 귀결
단순한 과잉설비 위기 아님. 브레너는 금융화도 처음에는 충분히 고려않음
- 20세기 '노동친화적' 체계의 형성: 사회주의의 위협 (시민권, 사회복지, 민족동일성이라는 양보) --> 조직된 노동에 대한 소비주의적 포섭
- 70년대 경제 위기에 대해 19세기적 방식(금본위제 하에서의 긴축)으로 대응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배경 (같은 시기 제3세계에서는 '신국제경제질서'가 나타남)--> 신자유주의의 전환 불러움
- 식민지 위협계급에 대해서는 '발전'의 틀이 제공됨 -- 대응의 차별성/위기의 차별성

(2) 세계 금융이 미국으로 집중

- 고도금융이 새로운 축적 중심에 투자되기보다는 쇠퇴하는 헤게모니에 집중투자
- 새로운 축적의 중심 등장의 불명확성: 그렇지만 아리기는 단호하게 동아시아를 지목
- 특히 2000년대에는 동아시아가 불모로

(3) 미국에 군사력 집중

- 제국주의간 전쟁이라는 20세기초의 구도의 가능성 부재. 미국의 전면적 군사개입(예방전쟁 논리)의 가능성
2차대전 대응 결과
- 북-북 간의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짐
- 대서양 공동지배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 군사력의 절대우위: 냉전과 2차 냉전을 통한 기술력의 절대 우위와 군사기술의 연계효과를 독점

(4)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결합한 결과

- ① 헤게모니 쇠퇴 반전을 위한 헤게모니 국가의 정치적 개입의 폭이 커짐: 오히려 체계의 카오스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네덜란드 시기와 정반대) -- '제국'적 팽창
- ② 새로운 순환에서 군사력과 금융력이 분기할 가능성 커짐: 제노바-이베리아 동맹의 비유
- ③ 전쟁의 장소가 중심부 대신 주변부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짐

(5) 초국적기업에 기반한 상호침투적 경제망 (다자주의 틀)

- 자유무역에서 보호주의로 이탈 대신 WTO라는 틀이 강화: 그 해체는 미국에 의한 것일

가능성

- 미국 해외 무역은 영국만큼 자유화된 적 없기 때문 (농산물 보조금, 다섬유협정, 슈퍼301 등)
- 마샬플랜 이후 미국 초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세계적 확대와 70년대 이후 유럽/일본 초국적기업의 미국진출: 금융화가 경제적 보호주의 아니라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진행 됨 (30년대 보호주의적 고립이 초래한 위기에 대한 대응) -- 상호투자의 네트워크
- 이후 신자유주의의 동력에 대한 위계적 상호협조의 틀이 형성된 조건

(6) 민족국가적 발전주의의 위기

- 1980년대 금융화와 맞물린 외채위기, 그리고 탈냉전은 제3세계의 발전전략에 대한 지원을 폐기 --> 동아시아 이외 지역의 제3세계권에서 국가구조의 전반적 붕괴가 나타나고 대신 새로운 동일성의 형성

(7) 외향적이지 않은 특성

- 영국과 달리 부분적으로만 세계경제체계에 통합된 특성
- 세계적 팽창은 정치적 조건 하에서만 가능
- 축적에서 배제된 지역의 증가

(8) 조직된 저항 세력의 부재와 분산된 저항의 증가: 통치불가능성의 문제

- 북의 국가 내부에서, 그리고 북-남 간에
- 이는 특히 민족국가 단위로 한 추격 전략의 위기 때문에 더 증폭(발전주의의 위기)
- 남-북 문제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진다(「남과북의 노동자」/ 하트·네그리 비판 논점)
- 통제불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짐 (이라크...)

(9) 동아시아로 중심이동하면서 문명의 이동이라는 쟁점

- 아리기의 관심

2. 현 시기 벨에포크의 특징

- 영국에 비해 훨씬 빨리 채무국이 되었다: 인도의 결여라는 원인
- 공물추출 없는 대가: 경상수지 적자 충당 위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공세적으로 경쟁해야 --> 외국인들에게 소득 유출
- 미국으로 자본유입 감축: 동아시아에 대한 의존도 커짐

3. 노동과 정치의 동학

- 다음 시간

<제 4 장> 20세기의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20세기의 자본주의의 동학>

I. 신자유주의 금융화

1. 금융화의 만개

(1) 달러-월스트리트 레짐

- 미국경제 위기를 금융적 팽창으로 타개
- 금융부문의 우위 하에 모든 부문이 종속: 양의 실질 이자율의 유지가 목표가 됨/ 인플레이션 저지가 중요한 신조 --> 높은 금융수익성이라는 규범의 정착('금리생활자의 안락사'의 종료)
- 은행의 중요성 줄어들고 비은행 금융기구가 성장: 정부의 금융통제의 불가능성
- 비금융 법인들의 차입과 부채가 1980년대 말 전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동시에 제조업체의 투자가 전후 최저 수준을 보임

* 소득의 이전

- ①국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부담을 개인에 분산시킴(조세가 이자나 원금상환 명목으로 금융영역으로 이전) ②국제적으로: 신흥시장 대출통해(1980년대 중엽부터 남북간 자본 순흐름 역전)

(2) 한세기전 금융화와 차이점

- ① 채권시장의 성장: 재정적자 보전위한 채권발행의 증가(공공채무의 증권화). 현재 전세계 금융자산의 1/3(신흥시장의 경우도 주식보다 채권투자가 많다) --> 양의 이자율 보호 위해 금융세력이 국가정책에 압력
- ② 연기금을 매개로한 기관투자자가 중요한 금융화 동력: 사적연금(ERISA, Calpers, 401(k)플랜 등)이 직접개입. 뮤추얼 펀드의 성장
- ③ 미국은 달러의 발권특권을 독일/일본의 협조를 통해 유지하며, 이를 통해 붕괴를 유예(금융체계의 위계적 성격)
- ④ 산업지배적 금융그룹이 금융화에 가세
- ⑤ 반주변/주변 지역의 확대와 금융위기 여파의 확대

4. 금융 취약성과 체계의 위기

(1) 미국 '신경제'의 취약성

- 노동생산성 증가는 주로 노동시간 증대에 의존.
- 주식시장의 거품: ①공급제한 요인(주식 공급의 감소) -- a)기업 자사주 매입 증가 b)종업원 보유주식 증가 ②수요증가 -- a)뮤추얼 펀드와 연기금 b)외부차입 증가(자사주 매입과 M&A)

- 가계채무의 증가(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 기록)/ 비금융법인기업의 차입증대
- IT 성장은 주식시장 팽창과 밀접한 관련(연기금이 주요 투자원)
미국 기업은 직접금융보다 사내자금 조달이 투자에서 더 중요함 (50-73년 자본지출의 93%, 73-95년 83%). 그러나 신생기업과 현금부족 기업은 주가 폭등 이용한 주식 매도 통해 자금 조달(IT 벤처) -- 동아시아도
- 이윤율 상승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
- 1995년 기타 세계가 보유한 미국 자산 총액은 미국 GDP의 46%였던 것에 비해, 2000년 전반기 그 수치가 78%로 증가. 그중 외국인직접투자는 18%뿐이고, 재무부 채권, 회사채, 주식이 52%

(2) 전지구적 금융체계의 취약성

- 산업자본의 축적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을 지향하지 않게됨에 따라 이윤율 저하를 막기 어려움
- '유동성 선호'에 따른 강력한 과급력
- 중앙은행의 영향력 상실
- 미국과 일본의 의존관계: 미국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일본 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유지(현재 제로금리) --> 연준의 유일한 화폐정책 수단은 금리인하인데, 이 때문에 금리인하 수단이 제약됨

(미국의 증시폭락시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과 환율방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고, 독일과 일본이 동시에 금리인하와 달러매입에 나서지 않으면 과급력이 확대됨)

(3) '제 3세계'의 위기

- 자본 흐름이 북->남에서 북->북 및 심지어 남->북으로 변경됨 (유일한 예외지역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 경우도 역내투자가 많다)
- IMF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워싱턴 컨센서스): 브래디 플랜에서 베이커 플랜으로 저인플레이와 금융의 고수익성 원리의 관철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자체적 비판: 윌리엄슨 -- 자본이동 통제요구)

II. 신자유주의와 경제사회적 전환

1. 노동에 대한 공세

(1) 신자유주의의 성격

- 자본이동 자유화(탈규제)와 노동의 유연성
- 고도금융에 대한 제약의 해체가 핵심(Arrighi)
- 자본소유주의 권한의 회복: 뉴딜 이후 경영자-일부노동자 연합에 의해 제약된 자본소유자의 권한의 전면적 회복(Dumenil and Levy) --> 금융우위이면서도 전체 자본의 요구를 수용

--> 1980년대 전환의 중요성: 1970년대 위기에 대응할 때 자본-노동의 관계에서 밀리면서 자본소득이 급격히 감소

(2) 노동에 대한 공세

- 1980년대 미국에서 항공관제사 파업에 대한 대응

- 고용안정성에 대한 파괴와 불안정노동의 증가
- 제3세계 발전주의 모델이 붕괴하면서 영향력이 전면화(특히 각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IMF식 개입의 확산)

2. 금융적 변신과 자본의 위계적 재편

(1) 금융화로 나아가는 배경

- ①브레튼우즈의 제한성과 미국 금융자본의 제한적 제약
 - 글래스-스티걸법의 제한적 유효성: 금융적 영향력의 유지
- ②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유럽의 금융화의 동력, 그리고 신보수주의의 형성
- ③1970년대 위기에 대해 자유화를 통해 대응

(2) 볼커의 전환

- 이자율의 대폭상승과 긴축, 금융구조조정: 금융화와 자본흡수의 토대
- 미국내 노동의 세력 약화, 금융파산과 선별적 조정과 대형화: 국가주도의 금융적 구조개편
- 새로운 금융기구와 금융기법의 형성(파생상품) -- 금융위기 조절의 새로운 방식의 초기적 형성
- 제3세계의 붕괴

(3) 금융자본과 다른 자본의 관계 전환

- 금융화한 산업자본(Chesnais)
- 노동에 대한 공세 속에서 금융 우위의 재편의 수용
-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모델의 확산: 인수합병의 중요성 증대
- CEO의 중요성 부각

(4) 미국에 유리한 세계경제 구도

- Gills의 정리방식(Gills 2003: 30-31)
- ①소비 기호 맞추기 위한 해외 투자와 전지구적 소싱을 보장
- ②미국 모델이 회계기준과 법률 개념, 규율을 제공
- ③미국 우위 얻기 위해 해외시장 접근, 자국 기술 보호
- ④세계적 증권시장 지배
- ⑤신경제 관련 기술 주도
- Wade가 보는 미국에 유리한 금융적 구도 (Wade 2003)

3. 중심부 국가 사이의 위계적 질서의 조정

(1) 미국의 금융우위

- 미국적 신자유주의 규범의 세계적 확산
- IMF, IBRD, WTO의 새로운 역할 -- 금융화의 도구
- 국가의 쇠퇴아니라 국가의 규제 방식의 전환

(2) 경쟁이 아닌 협조체제의 형성

- 미국 달러의 새로운 위상 강화: 금태환 아닌 기축통화와 발권의 특권 강화
- 미국 소비시장이 지탱하는 세계의 성장구도의 강화: 상호침투성과 의존성의 강화
- 미국 달러와 미국경제 지탱 위한 G7 통한 외환관리 체제
- > 디플레이션과 실업의 수출

-

4. 미국으로 자본유입과 미국의 힘

(1) 클린턴 하에서의 금융세계화의 강화

- 미국 주식시장의 팽창과 세계 자본의 유입 ('negative risk premium': Dumenil and Levy)

(2) 외국자본의 미국 투자의 증가

- 미국내 외국인 투자 자본의 자산보유 비중의 급격한 상승(Brenner; Dumenil and Levy): 85년 미국 GDP의 20%에서 2003년에는 GDP의 72%로 상승 (cf. 미국이 여타세계에 보유한 자산은 2003년 미국 GDP의 36%)

(3)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맞물림

-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팽창 -- 미국 소비시장의 팽창과 맞물림 --> 여타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으로 환류됨
- 20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 외환보유고의 재무성 채권 구입 증가 --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시킴

- 다른 나라 무역 흑자를 재순환시켜 미국 빚과 채무 메꿈(Gills 2003: 31-32) 2004년 재무성 채권의 50% 이상을 해외 보유, 중/일이 다수 (40)

"부시 정부가 실제로 세금 감면하면서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치를 수 있었던 능력은 아시아 정부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채권을 계속 축적하는데 의존하였다 (Callinicos 2003[2004], 168).

- 미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상응: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외환보유고 준비토록 하고 이것을 다시 미국으로 환류(Wade 2003).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Euro 통한 대비 없음

위기 후 아시아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필리핀 22%, 태국과 한국 28%, 인도네시아 70%로, 브레튼우즈 권고기준인 7%보다 세배 이상 (247)

미국 군사제국의 경제적 토대를 강조(249)

III. 제국의 불안정한 토대

1. 다시 제국 논쟁으로

(1) 제국의 안정성 논쟁

①안정적 구도론

- 위계화한 중심부간 관계는 미국의 경제력의 토대임(Panich and Gindin)
 - > 자본이탈의 가능성 없고, 미국의 성장이 여타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됨
- 위기 관리 방식의 공고화: 97년 동아시아 98년 러시아 위기 이후 위기관리의 방식이 정교화되어 감 (금융기법상, 미국과 초국적 금융기구의 관리기법상)
- 경상수지 적자는 발권특권과 정치적 우위, 금융적 우위 하에서 심각한 요인 되지 못한다
- * 금융 불안정성의 기능성 논의 (Rude 2003)
 - ①금융 turmoil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치법칙 운동 방식
 - ②자유화한 전지구 금융체계는 불안정 원천 아니라, 심층적 불안정성 관리과제 지니고 있음
 - ③전지구적 금융체계가 관리하는 금융/경제 turmoil은 종속계급과 민족을 규율하고 처벌함으로써 자본주의적/제국적 사회관계를 재생산(82) -- 경상수지 적자가 꼭 위기 낳는 것은 아니다

②토대의 취약성론

- 왜 신자유주의는 안정적이지 않고, 2001년 결정적 전환(Arrighi 2005) 이후 신보수파 주도로 전환하려 하는가? 실패가 예정된 기획(Ikenberry 2004; Nye)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 지탱불가능성: 토드(경상수지 적자, 군사적 개입력의 한계, 미국적 자유주의의 위기)
 - 군사적 개입의 위기: a)재정적자 b)세계의 동의 부재 c)관리 불가능성
 - 동아시아 이탈의 가능성(Arrighi)
 - 왜 클린턴 방식만으로 안되는가?: 벨에포크가 촉발하는 사회적 갈등의 고양 + 국가간 체계의 동요 -- 그에 대한 제국적 대응
- 이라크 전쟁은 국제적 신자유주의 지구화 유지확장 위해 벌인 21세기 끝없는 전쟁의 시작 아니라 미국 힘의 심각한 한계를 처음 보인 것 (Gills 2003: 41)

(2) 쟁점

- ①제국적 '공납수취' 메카니즘의 가능성: 자본유입이 그 유일한 통로일 수 있는가
- ②안정적 달러의 유지의 가능성과 재정적자의 확대
- ③노동의 이반과 제3세계의 이탈의 통제 문제 -- 새로운 포섭전략 가능성 문제

2. 미국 경상수지 적자

- 특히 90년대 말 이후의 금융화와 미국의 소비증가의 영향

3. 미국의 해외자산과 외국인의 미국내 자산 보유

4. 자본수익률

- 미국의 해외투자과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의 투자 수익률의 격차(1984-2003년): 12.7% 대 7.5% --> 미국 경제적 우위의 토대 (외국인의 미국내 자산보유가 월등하게 많음에도 자본수익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임)
-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내 외국인의 자산소득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미국투

자 자본소득이 유지되어야 하는 구도

- 자본이탈의 불가능: 대안적 축적중심이나 저위험성 지역의 부재 --> 가능한 모델은 오히려 미국내 자산소득에 대한 고이윤 보장의 압력 (즉 미국과 여타국가의 자본수익률 격차의 축소) --> 미국의 자본소득 지출 압박

5. 가계부채

- 1984년에서 2003년 미국내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 저축률은 10.8%에서 1.4%로 하락. 주로 상위 20% 소득 계층의 영향(Dumenil and Levy 2004)

- 가계의 순채무가 증대(신용구매와 부동산신용의 팽창) --> 미국의 소비증가를 지탱하는 틀(노동에 대한 공격의 보상책)

- 미국의 가계채무 증가가 경상수지 증가의 주요인 --> 여타국가들의 대미 수출의 유지 --> 수출의 흑자를 미국내 자본투자자로 유입시킴 --> 미국 금융화의 토대를 유지

- 경기부양책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으로 주식시장 부양 + 가계부채

6. 사회적 포섭의 문제

(1) 중심부국가

①미국: 소비주의의 지탱가능성 -- 가계부채 증가의 위기는 없는가

②유럽과 일본: 대미수출 지속에 따른 일정한 정도의 소득 수준의 유지

(2) 주변부 또는 반주변부

①성장지역: 그러나 발전주의 시기와 달리 비용경쟁 돌입 --> 사회양극화와 분절된 성장들

②배제된 지역: 국가의 중심성의 점차적 붕괴

- 남/북 갈등의 조절 불가능성(독립도 발전주의도 전망되지 못함)

7. 전쟁비용 지불의 한계와 자본이탈 가능성

(1) 전쟁비용 지불 방식

- 아리기의 주장(Arrighi 2005)

①세금인상: 불가능

②해외차입 늘리기: 경제-정치적 한계

③전쟁 자체가 비용 부담하도록: 미국 국방비 지출 크게 늘어난데서 보듯이 성과 없음

④발권특권 활용: 외국인 투자자산의 대량 디폴트를 발생시킴 -- 자본이탈 발생해 미국에 구조조정 강요하고 미국중심성 약화시킬 수 있음

(2) 중국의 등장

- 중국의 대미 협상력과 위상이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고양됨 (Arrighi 2005)

<동아시아와 세계체제>

I. 동아시아의 장기지속과 중첩된 시간대의 문제

1. 다층적 시간대

(1) 30년: 신자유주의의 시간대

- 발전주의의 종료와 다층적 하청체계의 확장
-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팽창에 포섭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기
- 쟁점: ①사회주의는 무엇이었는가 ②동아시아 모델 전환의 파장 ③중국 부상 ④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2) 50년: 냉전의 시간대

- 일본의 전후부흥과 동아시아 NICs
- 지정학이 우위
- 냉전의 동아시아적 차별성

(3) 100년: 세계자본주의에 의한 동아시아의 포섭과 대응의 분화

- 서양에 대립하는 아시아의 두가지 길: ①성립된 민족국가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배경으로 유럽의 세계에 나서는 아시아주의(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민족주의에는 반대) ②민족국가를 성립하기 위해 ①에 대립하고,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주의(정치적 민족주의 형태로)
- 동아시아의 콩중크튀르라는 쟁점
- 중국에서 제국의 경계의 유지

(4) 300/500년: 동아시아의 장기지속

- 해상무역 네트워크/ 조공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
- 동아시아 내의 통합 연계 방식
- 서양과 중국세계의 교호성의 역사서술

2. 아리기의 장기지속론

- 하마시타 다케시(조공무역)/마크 셸던과 공동 작업
- 맑스와 다른 모델과 시간대: '자본주의적 장기지속'과 무관한 모델의 구성
- 동아시아를 'world region'으로 설정 :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망
- ①500년 시간대: 세계 내에서 동아시아 세계지역의 공고화
- ②150년 시간대: 지역간 상호작용의 우세 -- 동아시아의 탈지역화(de-regionalization)
- ③50년의 시간대: 재지역화
- 20세기 동아시아 모델의 '경로 의존성'(미국과의 관계의 예에서도--제국 중심의 대체)
- 이 지역 내에서는 ①인구와 사적 교역의 흐름과 ②중국중심의 조공무역망으로 통합성
- 장기적으로 기본 틀은 중국 대 일본: ①국가간 경합 ②화교상권 대 일본 해상무역권 (조공무역권으로 통합된)
- 아리기의 '국가간체계' 상위론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근대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동아시아의 연관고리는 약해짐

3. 동아시아의 쟁점

- ①냉전의 지정학의 해체와 합의

- ②생산의 중심의 이동과 새로운 축적체계 형성의 가능성 (군사적 중심과 금융적 중심의 분리라는 특성도)
- ③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변화
- ④동아시아 역사의 장기지속과 문명이라는 쟁점
- ⑤동아시아 내에서 국가간 경계를 넘는 연대의 문제

II. 냉전과 동아시아의 성장

1. 동아시아 성장에 대한 설명들

- (1) 유교자본주의론/신근대화론
- (2) 신고전파 (세계은행/IMF의 견해)
- (3) 발전국가론
 - 더 나은점 있지만 ①당시 지정학과 ②현재 지정학 문제 놓침
- (4) 세계체계론적 보충
 - 냉전 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적 경제 체제를 미국세계모니 하에 편입하는 과정의 특수성과 단계적 변화를 고려해야

2. 냉전 직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1) 대일본 정책의 전환 -- 일본 군국주의 해체에서 전후 부흥으로
 - 한국전쟁 발발에 따라 일본의 전후 구상 변화
 - 일본의 달러갭 극복문제: 일본의 달러부족은 미국 상품에 대한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유발. 일본과 전전 동아시아 관계의 복원(일-중/ 일-북한 관계등) 가능성.
 - > 일본의 원조와 일본-동아시아 연계망의 형성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일본의 천연자원 공급지로 재정립(동남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단절시킴). 미국은 일본에 시장 개방과 동시에 한국전쟁 붐을 통해 일본이 성장하도록 독려.
 - > 1945년 일본 패전으로 일어난 공백의 혼란(중국/한국/베트남의 분단)을 메꾸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육성해 이 지역을 재통합하려는 정치적 시도 (특이한 형태의 연계성 -- 직접적 진출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 컸기 때문)
- (2) 냉전의 쇼윈도우
 - 미국시장의 개방/토지개혁과 지주 세력의 소멸(기술관료 중심의 정부주도성)/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지원(군사비의 경감)/TNC 진출의 제약/원조과 차관/초국적 금융자본의 통제/억압적 체제
 - 저임금과 미국시장에 절대적 의존 체제의 창출

3. 동아시아 성장과 다층적 하청체계

- (1) 다층적 하청체계
 - 일본을 정점으로 하여, 일본에 절대적인 기술력 의존하는 피라미드 망의 국제적 하청체계가 수립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이긴 하지만 TNC와 달리 소수지분/하청등이 주요한 내용임. 참여국들은 사다리의 상이한 분업수준에 따라 생산을 특화함
- (2) 일본의 아시아 팽창 단계
 - 일본중심 확장의 네단계: 미국세계모니 변동과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엔/달러 환율 변동: 70-73년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엔이 24.5% 절상. 75년경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일본경제 활력. 79년 엔 절하로 79-85년 9.5% 비율로 수출 증가. 85년 플라자 협약으로 대폭 평가절상. 95년 역플라자로 엔 평가절하와 동아시아 위기)

- ① 일본의 전후 부흥: 닛지 플랜에 따른 중화학중심 재벌의 복구. 전전 체제의 유지(재벌. 이원구조. 기업중심 노동포섭과 대다수 배제)
- ② NIEs의 부상: showwindow로서 일본모방과 산업/금융정책
- ③ 플라자 협약에 따른 동남아시아의 성장: 일본의 대외적 확장으로 ②와의 차이점 -- 산업정책 없는 FDI 의존형/대외 개방형 성장
- ④ 중국/베트남 등 구사회주의권의 포섭 -- 중국의 경우 ③보다 ②의 특성을 공유

4.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등장의 배경

(1) 1960년대 국제적 조건

- ①수송비용 하락하고 중심부시장의 무역장벽이 낮았다 ②일본 공산품 증가에 따라 미국 시장 내의 경쟁이 격화됨 ③중심부 고속연화에 따라 임금인상되고 저숙련 노동자 부족해짐. 이런 저숙련 노동력 지닌 저임금 국가의 비교우위 증대

cf. 라틴아메리카: ①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에 제조업 수출 필요성 낮음 ②미숙련과 고속련은 많았지만 기초숙련 노동력 적었음(대중적 교육의 중요성 낮음 -- 동아시아의 경우 노동/교육에 대한 의존도 높다) ③지정학적 중요성과 일본과 같은 인근국가의 부재(미국의 개입은 훨씬 더 정치적/테러적)

(2) 일본 자본의 동아시아 확장

- 1960년대 일본의 지가와 임금 상승. 엔화 평가절상

- 대기업을 아닌 중소기업이 해외 확장을 주도 -- 임금격차를 노린 다층적 하청네트워크의 형성 (일본자본의 상대적 취약성이 이유임: 이를 일본의 총합상사와 은행이 보완)

--> 진출이 인근 국가의 민족주의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양립됨(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광산 독점이 낳은 반미주의와 비교)

- 일본은 청정산업/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공해유발산업, 자원소모적 산업을 남한이나 대만으로 이동

-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되면서 수출 우회로의 성격이 강화됨

(2) 한국과 대만의 조건

① 토지개혁에 따른 국가의 자율성 신장: 군사적 엘리트주의

② 지정학적 이유에 따른 미국시장에 대한 이례적 개방성

③ 닉슨 독트린과 베트남전쟁 특수: 지역적 후견국가의 강화

==> 1980년대 이후 상황은 이전과 달라진다

III. 일본의 부흥과 동아시아 경제

* 역사적으로 일본 산업화의 세단계: ①1880년대 주도부문인 섬유와 함께 시작되어 일본이

세계권력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속됨 ②1930년대 중엽 강철, 화학, 군수, 자동차에 기반
둔 중공업단계를 시작해 1960년대 중반에 완수 ③고도의 기술 지식산업(전자, 통신, 컴퓨
터, 반도체 등)

1. 동아시아 네트워크 형성 설명 방식: 雁行型(flying geese) 모델

2. 2차 대전 전 일본모델의 역사적 뿌리

(1) 역사적 뿌리

- 1920년대말까지 일본자본주의의주요 특성 드러남

①이원적 노사관계(가족주의에 기초 됨) -- 종신/임시노동자 ②산업의 이중구조(재벌 대 중
소기업) ③대의제-민주적 통제 벗어난 강력한 국가관료제

(2) 식민지화의 특성

- 식민지 산업화라는 특징: 유럽식민지와 달리 자국에 산업을 집중하고 식민지를 원료수탈
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차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에도 산업화 추진.

- 후발주자로서 식민지에서 행정적 입안을 통한 시행이 두드러짐 (MITI의 전사)

식민지 관료는 토착적 지배계급을 대체

- 가까운 거리의 식민화: 이주의 용이성, 억압성이 강화

-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주의는 탈식민지 이후에도 남음

3. 일본의 전후 부흥

(1) 최초안의 수정

(2) 한국전쟁이라는 계기

4. 일본의 기적

(1) 수출주도 성장과 중화학 공업

- 1952년 미국 통치에서 벗어난 후 중화학공업 진흥: 이중전략 ①중화학공업이 재벌 재생
도움 ②1960년대 중반까지 경공업 수출에 주력

(2) 산업구조조정

- 임금인상과 경쟁격화로 경공업 플랜트의 해외 이동 권장

- 중화학 공업으로 수출 주도 이전 -- 남성노동자 수입 증가. 경공업 해외 이전으로 여성
은 저임금 서비스나 가사부문으로 (여성억압, 임시노동자, 하청이용이라는 노동체계)

(3) 중화학공업에서 기계수출로

- 중화학공업의 문제: 오염문제 + 토지가격 + 수출긴장 + 유가인상 --> 생산재배치

- 중화학공업을 남한과 다른 동아시아로 이전하고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컴퓨터를 중점으
로 삼음

- 국내 임금 기반한 수요 성장은 제약 -- 임시, 하청관계 이용해 핵심 기계산업 경쟁력 증
진

5. 위기와 재편

- 일본과 동아시아: 구조조정의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로 확장. 1970년대 초 유가인상/임금
인상/경쟁격화로 경공업 플랜트의 해외 이전, 중화학 공업 수출 주도, 남성노동자 수입 증
가, 여성은 저임금 서비스나 가사부문으로 이전.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 공업에서 기계 수

- 출로 이동(오염+ 토지가격+ 수출경쟁+ 유가인상 때문)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컴퓨터 중심)
 --> flying geese 일본 내부의 구조조정을 동반한 과정
 팽창 3단계 이후 일본 국내 경제와 동아시아 경제의 역관계의 수립
- 팽창 3단계 이후 특히 동아시아와 연계성 강화: 일본 무역 흑자중 1985년 동아시아 비중은 3.2%, 1993년에는 57.2%
 - 생산을 해외 이전하고 국내에서 비용삭감하는 전략은 계속 엔고를 유발 --> 임금의 계속 하락 --> 국내 수요 부족 --> 수출에 더욱 의존 --> 해외 투자 증가라는 악순환 낚음
 - 엔/달러 변동에 따른 반복적 위기: 미국시장 의존도 높음에 따라 미국과 정책 협조가 불가피
 - 일본과 동아시아 동반 상승의 모순: 엔고에 따라 대외적 확장 진행되나 일본경제의 거품 증가와 수출 감소. 엔저는 동아시아 위기로
 - 산업정책 체제의 종료: 대기업이 TNC화함 -- ①엔고에 따라 생산기반을 해외 이전. 국내는 서비스화/금융화 ②은행에 대한 의존이 줄고 기업 내부 유보자금에 대한 의존도 증가 (정부 산업정책의 효과 감소)
 - 정부 정책의 효과 감소의 사례: 저금리 정책(미국으로 자금 유입 촉진 동시에 국내경기 부양을 목표로) -- 과잉설비 문제/부실채권 문제/기업의 직접금융(또는 내부유보자금)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주식부문에 대한 대출이 증가 --> 거품 유발
 - 금융의 탈규제화: ①국채 발행 증가 부담 대가로 금융자유화(CD 발행 규제 완화) ②미일 경제 마찰에 따른 자유화 가속화 ③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은행차입 줄이고 직접금융에 의존(이는 국내 투자 가능한 양보다 더 큰 내부 기금이 축적됨에 따라 은행의 중요성이 감소된 것에도 기인)
 - 메인뱅크와 기업관계의 변화: 우량기업들은 직접금융에 의존하게 되고, 수익성이 낮거나 파산 위험 기업들이 간접금융(메인뱅크 용자, 담보사채, 은행보증사채)에 의존 -- 은행은 대출선을 변경(부동산과 중소기업) --> 거품경제 강화 (은행의 심사부름 축소)
 대형 우량기업과 메인뱅크의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주요 관계가 차입에서 당좌업무, 기채업무 등으로 이전
 - 농업의 희생과 'resortification' (최근 한국의 변화와 유사)

6. 동아시아 성장체제의 특성

(1) 내수보다 수출 의존

- 일본의 경우 내수부족을 수출확대로 메우는 체제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엔 평가절상 압력 --> 수출 감소 --> 위기를 구조조정과 임금억압 통해 해결 --> 내수 부족 --> 수출 증가 통해 해결 --> 경상수지 흑자 확대

(2) 단계별 구조조정과 불안정 노동의 문제

- 일본의 사례: 엔 절상의 압력을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임금 억제.
 --> 사양산업의 불안정 노동화: 특히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에 편중 (일본의 경우 남/녀 사이의 불안정 노동비율의 편중성)

(3) IT 연쇄

- 1990년대 말 미국 호황과 맞물린 하드웨어 공급연쇄
 미국에 공급하는 IT 산업의 호황과 과잉생산(일본/중국/한국/대만/동남아)
- 97-2000년 미국 제조업 무역적자가 2.5배 증가. 2000년 6월 회계연도에 대미 통신기기

와 부품 수출을 43%와 22% 증가시킴 (브레너, 255쪽)

- 최근 동아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IT 산업 비중이 높다: 동남아와 대만은 50%선, 한국은 36%. 미국 IT 관련 제품의 2/3를 동아시아에서 수입. 일본으로부터 직접수입에서 동아시아 OEM의 수입이 증가

V. 신흥공업경제(NIEs)의 출현과 위기

A. 동아시아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들

1. 시장중심적 접근

2. 국가중심적 접근법 -- 암스덴, 웨이드, 존슨, 해거드 등

(1) 성장요인

① 발전국가의 역할이 중요함 -- 경제성장의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자원을 집중시키는 자율성을 지닌 국가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성의 구분: a) 관료의 응집성과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 (지배계급도 피지배계급도 강력하지 않다). 또한 관료의 응집성

국가능력성: a) 장기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b)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집단의 행동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 c)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국내적 환경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② 발전국가 내의 선도기구: 한국의 경제기획원, 대만의 경제건설위원회, 일본의 통산성

③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해 규율을 부과 -- 산업인허가권, 은행대출권, 외국라이선스 허가권 등

④ 산업정책의 중요성

⑤ 수출지향 공업화와 수입대체공업화의 결합 강조

--> 웨이드는 이를 '관리된 시장이론'으로 부른다

(2) 문제점

① 동아시아 내의 차별성 경시한다 -- 한국과 대만의 차이, 싱가포르 등

② 국가가 과도한 단일체로 나타남

③ 권위주의 국가의 옹호로 나타날 수 있음 -- 노동억압, 인권유린

B. 동아시아 성장의 동학

1. 발전국가의 형성

3. 국가지배적 금융정책

4. 산업정책

5. 억압적 노동정책

C. 세계체제적 구도의 변화

1. 냉전하 미국의 지원의 틀

2. 탈냉전 시기 변화한 틀

- 경쟁 국가의 증가
- 선진국 보호주의의 증가
-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계의 변화

D.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전환 전략

1. 산업구조 고도화

- 노동집약-->중화학-->고기술산업으로
- 일본을 모델로 삼음. 기술격차 때문에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실패

2. 내수시장의 확대

- 자동차등 수출 주력의 수출시장 포화
- 내수로 확대 -- 이는 국내 임금수준 증가와 맞물림
- 국내 중복투자 낡음
- 한국 제외하고 내수시장 규모의 문제
- 저임금 체제 유지되기 때문에 내수 팽창에 한계

3. 금융/서비스 중심지로 전환

- 싱가포르 모델: 동아시아의 중간거래지 성격 강화 -- entropot로서. 금융시장으로서 --> 핵심 전자 등 남기고 금융중심으로 전환
- 홍콩도 금융서비스와 무역거래항 성격 강화
- 대만과 한국도 모방: 경쟁지역이 많아짐 (동경, 싱가포르, 홍콩, 상해)

4. 생산재배치

- 홍콩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로 확대: 홍콩이 먼저 시작한 이유는 노동집약 산업에서 그 다음 단계 고도화 진행되지 않고 외부 유입 인구에 의존해 왔기 때문
- 대만의 중소형 기업이 그 다음 단계를 이어 감
- 이는 중국의 화교계 자본 유치 전략과 이어짐

E.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

1. 위기의 요인들

①세계체제적 압박구조 ②민주화 ③민간자본의 성장 ④국가관료의 내적 동요(개방경제 신봉자의 등장)

2. 민간자본의 변화

- 자본대형화와 자본자유화의 결과 기업 내부 유보금 증가, 해외 차입이 쉬워지고 금리도 낮다 --> 은행민영화로 은행은 안정적 고객층 확보 -- 민간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에 집중됨

3. 국가별 위기

(1) 일본: 앞서 언급

(2) 한국

- 일본과 유사한 상황: 은행을 통한 재벌 통제의 한계. 재벌의 자금 동원선의 다양화(내부

- 유보금. 금융업에 진출. 해외저리차입). 특히 일본의 저금리로 인한 해외 차입의 이점 증가
- 기술적으로 선진적이지 않은 생산과 노동과 물류비용이 높은 문제
- 대미 수출 의존체제의 취약성(산업 고도화의 난점을 수출 증대로 해결) -- 미국 '신경제'에 따른 IT 연쇄의 혜택 + 대중 수출 흑자로 금융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남
- 1999-2000년 호황은 대미 수출이 31%씩 성장했기 때문
- 금융화/개인 부채 증가/주식시장과 부동산에 차입금 증가로 인한 거품 -- 일시적 소비 증가 (미국 경제의 방향과 맞물리는 조정)
- 미국 주식시장과 동조체제의 형성
- 재벌구조조정은 재벌해체 아님: 소유지분이나 상호출자의 문제 아니라 주식시장 지분매각 통한 자금조달 + 금융업 장악

(3) 대만과 중국의 차이점

- 산업정책 상의 차이점: 공유제 기업과 수출지향 중소 사기업의 이중체제
- 대만의 경우 수출지향 중소기업은 한국/일본의 대기업처럼 해외차입이나 직접금융 의존가능성이 낮고 해외차입보다 해외이전을 출로로 선택 -- 보수적 금융통제의 지속가능
- 대신 틈새시장에 의존한 IT 중심 산업의 공동화의 진행 (동남아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축)
- 국내 제조업은 외국인 노동자(필리핀)에 의존(99년 외국인 노동자 28만명. 2000년 총노동력 1천만, 외국인 노동자 34만 5천명), 다수 제조업은 본사만 유지하고 서비스화
- 중국: 공유제 부문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국가 은행 통한 자금 공급), 비국유부문은 FDI에 대한 의존(화교자본의 비중이 높다). 국내 저축률 높기 때문에 자금동원력 있음. 그러나 FDI 감소하면 수출 부문에 문제 발생(금융 위기 이후 FDI 추세의 변화)
-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의 농촌 노동력의 저임금 저수지화/도시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정노동의 증가
- (다만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내수의 모순이 덜 심각한 상황. 내수 시장의 확장 가능성)

(4) 동남아시아 (ASEAN3: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 다음 부분에

(5) 북한의 변화의 전망

- 중국과의 비교: 초기 조건의 차이
- ①농업비중 낮다(인구 25%선. 과잉노동력 문제없고 오히려 농업 노동력 부족) ②화교자본의 역할과의 비교(대만의 경우와 차이점). 한국기업과 점점 적다 ③중국이 이미 개방하였고 시장이 크다는 점 ④북한 시장 규모의 제한성 ⑤향진기업이라는 완충지가 없다(중공업 비중 과도함. flexible하지 않다) ⑥내부소비 증가 통한 점진적 저축 증가 불가능 ⑦외채문제 존재, 구조적 무역적자(원자재 부족/1차산품 과도 수출) ⑧여타 국가의 관심 적다

IV. 동아시아의 새로운 팽창 -- 동남아시아(ASEAN)의 편입

* 동남아시아의 성장

(1) 주목의 이유 (동남아시아 3개국)

①빠른 경제성장 속도 ②광범한 산업전환 ③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더 한층 탈규제된 시장활동과 외국인 직접투자

(2) 자본의 지역화와 3개국의 산업화

- 1980년대 중반 3개국은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 1차상품 가격하락, 국제환율인상, 자본유입 감소 때문

- 3개국 경험은 일본/한국 재생아니다 -- 수입대체공업화 기반 없다 (대용품 자본주의)

-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 이러한 지역적 생산체제는 통합적 민족적 발전유형을 복제한 '날아가는 기러기' 유형 아니다 --> 일본경제의 지역화 초래 (일본의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외연의 확대)

(3) 동아시아 주변부에서 수출주도 성장의 비용

- 3개국 성장할수록 국제수지 적자 심해짐 -- 노동역압, 외국인노동자 유입 통한 임금 하락 불가피

- 태국의 예: 수출지향 제조업 지원 위해 노동자와 환경 희생 -- 빈곤과 불평등

- 중심/반주변에서 수입부품, 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의존하기 때문에 주변부 국가는 수출과 외화소득 증가에 매달림

(4) 3개국에서 모순에서 위기로

- 3개국 성장전략은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

- 일본/신흥공업경제의 자본 지역화에 따른 무역구조에서 생기는 문제: 유사한 수출품 과잉생산 -- 수익성/안정성 하락

- 1990년대 중반까지 태국/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의 FDI 감소 -- 중국/베트남으로

--> 다른 자본유입: 서구자본들.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 차입자금이 주로 부동산 등에 투자 -- 상환불능

* 동남아시아 (ASEAN3: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 일본자본의 대외적 확장의 결과: 주로 투자원이 FDI

- 1차산업국가에서 바로 일본 FDI에 따른 중간 하청업으로 전환

--> 산업정책에 기반한 중화학공업 기반(수입대체공업화)이 부재,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가능성

- 산업정책 없고,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조건(FDI 유입 위해) 때문에 이전의 동아시아 성장과는 다른 형태임. 국민경제적 통일성이 없는 채로 일본의 지역화에 수직적으로 포섭됨

- 일본자본 진출 당시 상황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1차 상품 가격하락, 국제환율인상, 자본 유입 감소 때문

- 일본에 핵심부품과 기계(+ 기술, 비즈니스)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증가(미국시장을 향한 우회로거나 일본에 공급되는 중간재)가 대일 무역 적자를 유발

- 이와 동시에 경쟁국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단가의 계속적 하락

--> 이상의 두 원인(+ 엔저)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

--> 외환보유액의 감소: 포트폴리오 투자의 적극유치 + 관광/매춘 유치 통한 외화벌이.

환경파괴

- 저비용 위해 초기부터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 수입: 경제성장이 국내 고용확대의 효과가

낮고, 사회적 안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

(2000년 태국: 노동력 3400만, 제조업노동자 479만명. 외국인 노동자 100만

말레이시아 노동력 962만, 제조업노동자 213만, 외국인노동자 124만

필리핀의 경우는 전체 노동인구의 20%가 외국에서 노동 www.prb.org)

- 1990년대 초 일본의 태국/말레이시아 FDI 감소하고 이것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 이를 메우기 위해 대신 서구의 포트폴리오 자본을 대량 유치. 차입자금은 주로 부동산 등에 투자 --> 상환불능

- 금융투기 책임론의 문제점: 구조적 문제임(말레이시아가 해결책 되지 못함)

* 태국의 사례

1. 1950년대 -- 기초적 수입대체 공업화

- 태국은 식민지 경험 없었으나, 인근국가와 비슷하게 영국의 식민지역체제의 일부를 이룸 (1차산품, 원료의 공급지 -- 고무, 쌀 등

- 1957년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살리트 정권 (입헌군주제) --> 타이인에 의한 타이경제 강 조해, 시멘트, 설탕, 유통, 운수, 금융 등에 국영기업 설립

- 소비재 중심 공업화

2. 1960년대 -- 민간주도 개발시대

- 국왕, 불교, 민족을 통합의 중심으로 삼음

- 개발 경제정책 ①민간기업 중심 공업화 ②적극적 외자도입 ③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책정 ④산업 인프라 정비

-->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3. 수출지향공업화로

- 1960년대말 산업정책 통한 정부개입을 시행. 높은 보호관세 시행 -- 수입대체공업화 시행

-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생산과잉. 원재료와 기계수입 늘면서 무역적자 심해짐

- 1970년대 들어 수출지향공업화로 전환 -- 70년대 초 투자장려기업의 40%는 일본계 : 일본영향력 늘면서 일본제 불매운동이 아타남

--> 수출지향 공업화 여의치 않고, 특혜받은 기업이 국내에 생산하기도

- 1차 유가인상때 1차산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돌파구

- 1979년 2차 유가인상으로 심각한 불황 -- 대대적 개방과 자유화로 나아감

4. 플라자 협약의 계기

- 1980년대 이후 수출구조 변화: 주요품목이 컴퓨터 부품, 섬유, IC, 자동차부품순 (2000년)

- 외자의 유입 빠름

- 경기과열 조짐: 지가의 상승(도심은 5배, 교외는 35배까지 폭등, 소비붐)

- 동남아시아 금융센터 구상을 세워서 BIBF 개설 (방콕 역외 금융시장)

5. 위기로

- 투자와 저축의 갭을 해외 차입으로 메우는 상황
- BIBF 개설로 정부의 금융통제 약해짐 -- 앞의 갭도 메움
- > 단기차입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방편
- 1995년 엔저로 수출가격인상
- 바트화 절하 요구 -- 그러나 달러채무 부담 증가 때문에 은행에서 반대, 차입통한 부동산 붐 이득본 세력도 반대, 무기구입 중시하는 군부도 반대 (타이는 통화바스켓 제도였으나 실제 달러의존 강한 페그제적 성격)

VI. 새로운 지역의 포섭 -- 중국과 북한

1. 중국과 동아시아의 연계성 -- 동구 탈사회주의와 차별적인 특징

(1) 화교자본과 중국성장의 연계 -- 중화경제권(Greater China)

- 중국 성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핵심적 역할[발전도상국에 대한 FDI는 94년 41%에서 2000년에 19%로 하락. 중국경우는 발전도상국 FDI가 집중하여, 2000년 20%, 홍콩 포함하면 36%], 그 FDI 중 화교자본의 투자비중이 절대적 --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60-70%선, 1990년대 중반 하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99년에는 다시 82%까지 상승
- 노동집약적 부문에 실물투자 중심. 화남(광둥, 복건성)에 집중. 역사적 유산인 화교네트워크를 활용.
- 홍콩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 화교로, 다음 단계에 대만으로 확대
-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이 국유기업 대폭적 구조조정 없는 '점진적 이행'이 가능한 근거 (여기에 향진기업이라는 중국적 유산도 작용)

(2)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NIEs)의 산업구조조정과 중국대외개방의 연계

- 1980년대 NIEs의 산업구조조정 요구 높아짐 -- 후발주자 증가와 선진국 보호주의
- 네가지 대응
- ①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의존/R&D/금융력 등 때문에 제한적 효과 ②내수시장 확대: 시장의 규모/소비수준의 한계/중복투자의 문제 ③금융·무역중심지: 역사적 자원있는 지역에 한정, 경쟁의 증가
- ④생산의 해외 재배치: 특히 화교자본 집중지인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생산의 집중적 재배치(홍콩과 대만의 발전형태의 특성 반영). 1988년 중국정부의 화교우대 정책
- > NIEs의 생산네트워크가 중국 화남지역으로 확대

(3) 일본의 중국투자 확대

- 1985년 이후 동남아시아로 생산확대, 이어 중국으로도 확대 지속
- 외형적 FDI 수치 넘어서는 일본적 생산과 생산재배치의 특성 나타남: ①FDI 이외의 차관과 원조의 역할(ODA 집중) ②홍콩의 매개 ③종합상사와 은행의 매개 ④국제적 하청네트워크와 특히 2000년대 EMS
- ==> 동아시아와 중국의 연결고리는 분명해짐. 어떤 발전노선이 나타나는가?

2. 시기적 조건

- 전후 동아시아 성장의 세 단계

①일본의 성장 ②동아시아 NIEs ③동남아시아와 구사회주의 국가들

-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가르는 핵심적 차이는 냉전의 종료와 금융중심 세계화

- 그에 따라 나타나는 세 번째 시기의 차별적 조건(특히 동남아시아): ①미국의 우호적 지원의 부재(시장개방, 원조, 군비분담 등) ②보호주의의 어려움과 금융개방 ③산업정책 취약(수출지향 공업화 동반하는 수입대체 공업화) ④토지개혁에 기반한 강력한 관료제(부분적 특징으로서)

- 외국인직접투자 의존도 높고 외부적 충격에 취약함. 생산재배치의 동학이 중요한 역할. 성장의 몫 배분 통한 발전의 정당성의 취약함(불평등 구조). 고용확대보다 외국인노동자 의존 높다. 서비스/부동산의 팽창

- 중국의 이례성: 시대적 특징을 동남아시아와 공유하나 외부적 충격에 대해 거리유지 -- 화교자본 투자에 기반하나 다른 특징들도 작용

3. 중국 변화의 방향성 둘러싼 논쟁

(1) 경제자유화 모델

- 수출지향 개방경제, 국가개입의 축소, 비교우위론이 중국 성장의 동력이라는 논지 : 정부 경제정책 전환, 국유기업 비중 축소와 정부 통제 받지 않는 외자(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다), 사영기업 증가를 논거로

(2) 발전국가론

- 국유부문 비중(고정 자본 투자의 53%, 중대형 공업기업 총생산치의 47%와 기업자산 67%). 국유기업의 대형화와 합병, 금융자원의 국가통제

-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가지는 중화학공업기반

- 웨이드가 말하는 '통제된 시장'에 가까운 특징

4. 국가 경제 개입 방식의 전환과 동아시아적 특징

(1) 시장중심적 전환

- 1992-94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의 정식화

- 1993년: 현대기업제도의 도입

- 1995년: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

- 1997년: 사유경제가 '국민경제의 보충'에서 '국민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전환 (--> 99년 헌법에 반영)

- 1999년: 전략적 부문에 국유한정, 기업지배구조 쟁점 등장

(2)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①어떤 부분을 국유로 유지할 것인가: 비교우위론(학계) 대 중기술 산업 집중육성(정부 싱크 탱크) --> 국유기업의 대형화와 과점화를 통해 핵심기업 육성(인수합병 붐)

②국유기업 재배구조 조정 방향: 주식회사제도 도입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 그러나 주식시장 중심은 아님 --> 영미형 기업지배구조 형성으로 귀결되지 않음

(3) 정부 통제 하의 금융체계

①직접금융

- 주식시장의 빠른 성장. 상장기업의 주식시장 통한 자본조달 비율 높다
- 주식시장의 상장 통제. 비유통주식 비율 높음. 낮은 자본조달 비용 때문에 직접 금융선호 (배당 비중 크지 않고, 경영 개입 없다는 전제)
- > 주식시장이 자본조달 통로로서 간접금융보다 중요해질 가능성 낮고, 주식시장 통해 기업경영권 거래 어렵다

②간접금융

- 1993년 은행 상업화와 국유은행의 독립과정 -- 그러나 국유 이외 은행 발전 매우 낮다 (국유가 대출 총액의 80%와 개인예금의 75%)
- 재정지출 통한 기업 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 통한 투자로 전환한 1985년 '拔改貸' 이후 큰 변화 없는 국유은행 체제

③높은 저축률

- 예금규모가 일본의 44%, 한국의 4.6배 --> 외부 자금 의존률 낮다

④국유와 비국유 부문의 이원구조

- 은행 대출중 외자기업 비중은 2.9%, 사영 및 자영업은 0.8%일 뿐
- ==> 은행의 국가통제 유지될 것, 대출의 이원구조 유지될 것.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체제도 강화

(4) 산업정책

-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경제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산업정책 중요성 강조됨
- 1994년 <1990년대 산업정책 강요>와 <자동차공업 산업정책> 등
- 지주산업 추진: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
- 그러나 아직 체계적 추진 나타나지 않고, 부문별 산업정책보다는 산업조정정책이 주요함
- 산업정책 취약성의 이면: ①사회주의 하의 중화학공업화(수입대체 기반 조성되어 있음)
- ②정부의 금융통제와 국유기업 통제로 산업정책 효과 ③당조직 중심의 경제공작회의 같은 비공식적 조직의 영향력
- '연성산업정책'적 특징과 이중구조의 특징

(5) 이후 전망

- 베이징 컨센서스의 논의(post-Washington Consensus와 유사)
- 사회적 불안정성과 '조화사회론'
- 구조조정의 파장. 도시/농촌이라는 준국경과 농민공 차별(국내의 중심-주변)
- > 발전주의 환상 보완하는 애국주의의 지속 가능성 문제

5. 동아시아 모델과의 비교

(1) 공통점

- 은행중심의 정부의 금융통제를 핵심적 특징으로 함
- 수입대체공업화에 기반한 수출지향 공업화
- 강력한 관료기구의 주도성

(2) 한국/일본과의 차이점

- 민간대기업 중심체제: 정부가 부문경사형 산업정책과 정책금융통해 재벌을 육성. 외국투자 중요성 낮다. 대기업이 수출주도부문이자 산업정책의 수혜자.

(3) 대만모델과의 유사성

① 이중구조 경제: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이원구조 --“공적소유가 시장보호와 교환관계에 있음”(웨이드)

* 대만 경우 공유제는 대기업, 부문경사형 산업정책의 대상,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대상임, 수입대체 중화학공업화가 집중되는 부분

비공유제는 중소기업, 연성산업정책의 대상, 사채시장에서 자본조달,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의 핵심임

* 중국의 경우도 국유는 대형, 사실상 산업정책의 대상, 은행대출의 수혜자, 수입대체 중화학 부문이며, 중소형 비국유가 FDI와 개별적 자본조달, 비교우위 하의 수출산업 주도, 산업정책의 외부에 있음

--> 공적소유가 산업정책 효과를 창출. 국유와 비국유의 자금조달 방식의 이분법과 생산분야의 구분

--> 당중심의 국유부문과 달리 사회적 조건의 차이로 개방경제에 통합된 비국유 중심의 수출지향 공업화 방식

② 주식시장의 저발전과 자본유입 통제

- 주식시장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공간이 되지 못함

==> 분석의 초점에 따라 경제자유화 모델과 발전국가론 모델이 동시에 드러나는 이중구조. 대외개방의 핵심 동력이 중소형 비국유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한 완충지대의 형성

VII. 세계체계의 지정학과 동아시아

* 유럽과 다른 상황

- 비슷한 규모의 다수국가 대신 두개의 대립적 축의 존재. 역사적으로 대립(‘탈아입구’ 이래 두가지 아시아 전망)

-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맥락의 차이점: 지역적 강국이 됨으로써 세계적 강국이 될 수 있는 중국/ 지역적 힘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만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본(브레진스키)

1. 미국

- 냉전의 해체가 초래한 불확실성의 증가: ①중심부 국가들의 동요(EU, 동아시아) ②주변부의 포섭방식의 변화와 주변지역의 이탈(‘불량국가’ -- 미국헤게모니 관리 동요에 따른 중심부내 경합국의 출현가능성?)

- 전체적인 대응으로서 대이라크 일방주의 전쟁

- ②에 대한 대응으로 ‘반공’에서 ‘인권’으로 국제전략을 수정(UN과 주권을 무시한 일방주의의)

- 일방주의적 전략의 한계와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

미국내 일방주의/다자주의 대립도 큰 차이 없음: 동맹국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수용하는 한계 내에서만 다자주의적 틀을 유지

- 동아시아의 틀: 일본을 동맹국으로 유지하면서 중국을 포섭하는 전략의 실현 가능성

일본의 에너지를 국제적 방향으로 돌리고 중국의 힘을 지역적 적응의 길로 돌리는 문제

- 기본틀: 1995년 Nye 보고서: 일본을 동맹으로 유지. 동아시아에 10만명 주둔 유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확대 -- 미/일 안보가이드 라인
- 중국과의 문제: 두가지 시각 ①충돌가능성 ②해양과 대륙의 분명한 경계선 설정에 따른 안정적 구도(대만과 한반도의 부차화)
- 중국을 활용해 러시아의 저지, 중동의 개입, 인도/파키스탄의 개입 등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한반도의 변수
 -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미/일/중의 공감대: 남한에서 미군 철수시 일본 내 여론 균열(재무장을 둘러싼). 통일 될 경우 남한에 미군 주둔시 직접 중국을 겨냥하는 부담, 철수시 통일 한국이 미/일 동맹에 대항하여 중국으로 기울 가능성.
- 대만변수: 현실주의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 의회 정치의 변수
- 동아시아에서 현상유지와 다자주의가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겠지만, 이는 미국 전체적 방향과 모순됨
-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대한 제어력의 부분적 약화와 중국 역량의 강화

2. 중국

- 군비의 증강과 현대화
- 해양진출력의 한계: 원양함대 유지 능력 없음
 - 세계적 군사강국보다 지역적 군사강국을 모색: 과대한 군비경쟁은 소련의 전철 밟을 수 있음 (핵 이외에 지역적 반경 바깥으로 군사력 투입 수단 모색 아직 없다)
- 미국보다 일본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Nye 보고서 이전 단계에서 미군 철수 후의 공백에 대한 우려
- 미국과 직접 충돌을 회피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
 - “위축된 미국이 지역적 지배 국가인 중국을 동맹국으로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강력해진 중국을 자신의 동반자로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미국의 지역적 힘을 희석시키는 것”(브레진스키)
 - > 미/일 동맹에 맞서 성급한 방어적 팽창을 추구하거나, 미국 세력을 성급하게 일본 세력으로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 장기적으로 미-일 사이의 균열을 목표로
- 한반도라는 완충지대: 일본과의 직접 대치의 회피. 분단상황에서 미군 주둔 용인하나 통일 이후 주둔시 중국을 겨냥하는 위협.
 - 분단의 유지 또는 통일 후 한반도를 친중국 세력으로 포섭하는 전략. 통일 한국이 미국 세력의 연장선이 아닐 경우에만 지지.
- 대만문제: 미국과의 협상 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장기적 해결에는 동의. 대만에 대한 과도한 무력개입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빌미가 됨. 미국의 대만문제에서 의도적인 모호성의 유지
-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인도의 동맹 가능성: 현실성 낮고, 중국의 우선순위 아니다. 이는 오히려 미-일 동맹을 강화시킬 가능성 있으므로.
- 외국자본의 투자 때문에 현실적 선택지가 많은 것은 아니다
- 석유외교의 중요성: 미국의 제어 우회해

3. 일본

- 유럽과 비교할 때 주변 동반국을 확보하지 못함. 역사적 갈등구조의 존재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 일본의 일방적인 지역적 우세는 불가능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국제적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세계 2위의 군비지출. 현대화된 체계. 신속 핵무장의 가능성.
- 현상유지세력(미국 의존파)의 입지 축소: 현실 변화에 대한 요구 강함
- ①독자적 무장(반발 크다) ②미국 지원 하에서 발언권 확대: 활동 영역을 연근해에서 동남아까지 확대/헌법 9조 수정 -- 경제적 이점과 동시에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
- ‘정상국가’로의 전환 모색: 1980년 나카소네 수상의 구상에서 시작해 1994년 오자와 위원회 보고서 “신일본을 위한 청사진: 국가에 대한 새로운 사고” -- 미/일 안보체제 유지 하에서 세계정계에 적극 개입(국제적 평화유지 활동 주도)해 국제적 수동성에서 탈피
-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선의 성립을 우려: 미군 철수가 초래할 직접적 대립 및 한반도의 친중국적 변화에 대한 우려. -- 미-일 군사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위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로 (지역강국이 될 것인가 세계적 주도국가가 될 것인가)

4. 북한

<노동과 노동운동의 역사, 그리고 역사적 맑스주의>

- 세계경제/국가간체계 우회 후 다시 사회구성체의 문제의식의 보완 필요성

1. 세계체계론의 강점과 약점: 계급과 노동문제와 관련해

(1) 윌러스틴의 기여와 한계

- ① 강점: 계급을 가계/신분집단 속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것으로 지적
 - 인종주의/성차별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 재생산의 고유한 이데올로기임을 지적
- ② 반체계운동을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구성, 노동자 주체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구성체’(일단 이 용어를 사용)적 효과에 대한 경시. 더 나아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차별적 요소의 효과들에 대한 저항의 통일성의 부당 전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포섭되는 차별적 시간대/공간의 조건이라는 문제 -- 동아시아의 맥락]
- ③ 19세기 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 등장과 실질적 포섭의 진척의 상호 연관성 문제로 진입하기보다 이를 중심-주변의 동학 속에 포섭 [②③은 주체의 생산이라는 측면 덜 강조]
- ④자유주의는 다만 ‘열망’과 ‘환멸’의 차원에서만 분석됨. ①의 전제와 연관된 효과의 심도를 파악하지 않고 중단.
 - 폴라니적 비판의 계기가 있음에도, 이를 확장하지 않음
 - 네오 스미디안이란 비판은 부적절(스미스적 포획 넘어서는 계기 있음: 오히려 비판자들이 더 스미스적 시장관) [시장보편성, 자동성 거부]

(2) 폴라니적 계기의 중요성

- ①스미스 『국부론』의 자유주의적 계급투쟁관에 대한 근본적 대립
 -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의 비대칭성과 분배상의 비대칭성, 그에 따라 노동자의 노조조직화

의 필요성을 지칭한 『국부론』의 자유주의관 -- 분업의 증가와 부의 배분의 불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틀

- 폴라니는 사회의 'disembedded'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와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논의 속에서 근대적 주체형성의 과정의 질적 단절에 저항하는 과정을 보여줌

-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확대를 단지 더 넓은 분업의 확장과, 그 속에서 분배 몫의 불균형 발생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적 변화, 즉 적대의 출현으로 보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 (본래 맑스가 강조하려 한 '삶의 전반적 파괴') (적대는 구조를 지칭)

②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한 근대적 주체구성의 파멸적 효과: 작업장의 통제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자 주체의 재생산에 대한 실질적 포섭을 포함해

a)삶의 전반적 파괴에 따라 기아의 '규율'이 정착 b)이와 동시대적으로 진행된 '정치적'이고 '법적'인 주체들의 'disembedded'가 동시적 효과임을 지적 c)그것은 매우 보수적인 대응에 의한 포섭(나치즘, 인종주의....)을 촉발

--> 해석하자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a)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통한 실천이며, b)이는 또한 삶의 파멸로서의 적대의 생산 c)여타의 요소들(성차, 인종, 민족, 지적차이 등등)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삶의 파멸적 형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동원될 것임을 지칭

* 폴라니에 대한 의도적 강조

- 맑스주의에 침윤한 스미스적(고전파적) 시장관과 사회관을 넘어서기 위해서

a)교환성향에 따른 주체의 자기 동화에 의해 연결된 관계라는 환상 b)시장의 positioning이라는 문제설정 (시장은 다른 것들[사회?]과의 속에서 특정한 위치 속에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시장교환적 성향이 사회적 관계의 일반적 조건이 아니다 -- 맑스도 『그룬트리제』 서설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우위라는 형태로] 경시되었음) c)자기조정적 시장경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만들어진 주체가 필수적이며, 이는 자연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주체는 생산/재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파멸적 효과의 결과이다. d)19세기말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유효성을 재해석할 필요(니체, D.H.로렌스 등): 파시즘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의 dislocation/해체에 대한 한 반응 -- 왜냐하면 폴라니 지적대로 대중민주주의는 사회로부터 박리된 주체를 시장적 주체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원자화한 분산된 주체로 뿌려둘 뿐임

==> 이는 알튀세르가 재생산의 문제설정을 통해 강조하려 한 바이며, 세계체계 분석은 폴라니에 추가해 이 과정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추가

(시장적 주체 형성 없이 '시장' 불가능 -- 그 주체 형성 효과는 파멸적)

- 스미스에 포획된 맑스의 구출: 더 많은 상품화로서 노동력 가치대로 받기가 아니라 임노동관계의 재생산 자체의 폐절(「임금, 가격, 이윤」에서 맑스가 『자본』을 요약하면서 두가지 운동을 구분한 것) -- 임노동관계의 폐절을 전략적 단계로서의 혁명이 아니라, 즉각적 운동의 경향으로 파악할 필요

- 폴라니는 '생태'라고 해야할까, 즉 '경제' 또는 '생산관계'의 사회(또는 역사적 체계: 그렇지만 '사회구성체'적 문제의식의 필요성) 속의 뿌리내림을 지적하는 부분의 강점 --> 그 해석은 두가지 방식 가능 ①진화론적 방식(신제도주의적: 경제는 사회적 관계들의 유기적 연

장선에 있다: 각 사회 특성의 제도적 고유성) ②사회적 관계의 적대와 모순(사회적 적대의 과잉결정)

- 물론 플라니가 이를 정확한 용어로 정확한 곳에서 지칭한 것은 아님 (그것을 형식적 포섭에 더 초점 맞추고 부분적으로 실질적 포섭 다루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 (플라니에 대한 낭만주의적 해석 경계)

- 그러나 플라니의 서술 방식 자체가 아담 스미스에 의한 포획을 불가능하게 함(그에 비해 맑스는 스미스적 전제 하에 그 모순 폭로의 측면)

- 앞서 계속 강조한 19세기적 단절은 이중적 함의를 갖게 되는데 ①기계의 도입과 노동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통제 개시, 그리고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의 출현의 시기 ②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착에 따른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그 파멸적 효과의 출현(지배이데올로기를 자기 것화 하는 과정에서 '자존심 잃고 기아의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수동적 주체성의 형성의 계기 -- 그것은 동시에 민족화한, 그리고 인종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주체)

2. 아리기의 문제제기: 「맑스주의의 세기, 미국의 세기」

(1) 기본 구도

- 중심-주변 분할과 국가간체계의 동학이 맑스주의 운동에 끼친 효과

: 「공산당 선언」의 두가지 테제의 분기의 역사 ①공핍화 테제 ②사회적 권력테제(생산의 사회화와 노동자의 집중에 따라)

- 운동의 조직에 초점이 놓이고, 운동의 '주체'들,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저항의 주체들의 역설적 효과에는 부분적으로만 초점 (특히 인종주의[그에 대해서는 제한적 지적], 성차별주의는 큰 강조 없음)

- 프롤레타리아 통일성 신화를 비판: 서로경쟁하는 원자화한 개인과 아니면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보편적 계급이라는 두 통념 사이에서 동요한 맑스와 맑스주의 비판

(2) 분석: 세 시기의 대비

- 역사적 맑스주의의 역설: 사회적 권력이 형성된 곳에서는 맑스주의 조직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맑스주의 조직은 공핍화가 진행되고 노동자의 사회적 권력 형성이 더딘 곳에서 오히려 힘을 발휘했다

- 노동자 통일성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면서, 조직을 통한 노동자계급 정체성 형성에서 '도덕적 분노감'과 국가형성을 향한 지향,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애국적 동일성' 형성이라는 계기를 더 중시

- 세 시기를 구분:

① 1인터내셔널의 시기(1848~1896)

- 공핍화와 사회권력이 동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임

- 파리코문의 역설: 앞서 지적한 두 추세 때문이 아니라 보불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무능력이 결정적 계기 -- 이후 민족당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 파업은 선두이나 노동계급 정당 결성은 느린 영/미와 그 정반대인 독일의 길로 분화

--> 정당 결성이 경제착취/노동계급형성/노자간 구조적 갈등과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국가의 조절 역할이 중요해지고 시민권 획득이 중요 쟁점으로 등장

- 산업프롤레타리아트와 정치적 경향의 괴리가 다음 시기 근본적 문제로 등장
- ② 세계대전과 두 추세의 공간적 분할의 시기(1896~1948)
 - 두 가지 경향이 두 지역으로 분화
 - 궁핍화와 사회권력 증가는 세계시장지배보다는 세계대전의 결과로 나타남
 - 사회권력 있는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지지 못받고, 사회주의 혁명 지지층 얻은 곳에서는 산업 pt가 사회적 권력 얻지 못함
 - 그 결과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에 의존하지 않고 '전위' 통해 권력으로 나아감 (대중의 점진적 궁핍화에 기반해)
- ③ 미국세계모니의 시기(1948~)
 - 미국세계모니는 세계프롤레타리아트 분파를 포함하는 새 질서를 수립
 - ①탈식민화화 주권국가 체계의 강화 ②국내적으로 노동자의 사회적 권력 수용
 - 유럽 노동자의 사회권력도 대폭 확대 -- 노동자의 조직화
 - 지속의 난점: 비용 삭감의 시도
 - > 두 경향이 다시 수렴 : ①궁핍화는 중심부 프롤레타리아로 확산 ②사회권력은 주변부·반주변부로 확대

(3) 역사적 맑스주의의 위기

- 이러한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맑스주의의 맹목적
- ①중심-주변으로 분리된 효과 + 국가간체계의 붕괴의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맑스주의의 난점
- ②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괴리되는 효과의 파악 불가능성 (국가의 조절의 문제 + 개량화라는 문제) (중심+ 주변)
- ③이는 프롤레타리아 통일성의 신화의 문제와도 연과됨: 정체성 형성에서 연령/성별/인종/국적/종교 기타 자연적·역사적 특성의 역할 보지 못한 난점
- ④전위는 국가로 조직됨으로써 고유한 효과를 낳음: a)대중조직을 전위조직으로 대체(프롤레타리아 사회권력과 대립) b)행정업무를 떠맡고 그 성과를 시연해야 했음
 - > 전쟁과 포위의 위협이 사라지자 문제가 발생
- 역사적 맑스주의는 「선언」에 역행
 - ①노동계급 당(보편적 당--당의식)에 반하는 독립당(당조직: 민족당)
 - ②전위가 프롤레타리아 투쟁보다 우위성 지님
 - ③영토획득한 맑스주의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지배받음
 - > 폴란드의 연대노조는 정확히 이에 반하는 저항
- 운동의 위기는 이중적 무능력의 결과
 - ①조직노동의 위기: 중심부에서 궁핍화 증가
 - ②맑스주의 조직의 위기: 프롤레타리아 사회권력의 증가

(4) 현시기 노동운동의 특성: 96년 「세기말 노동자들」(「신자유주의에서 노동자운동의 위기와 전화」로 번역)

* 노동운동의 위기

- ①재배치 때문이라는 논의: 재배치된 곳에서는 노동운동이 오히려 고양 --> 그럼에도 위기 나타나는 이유는 금융화와 산업에서의 철수 때문

②자본주의 승리 증명이라는 주장: 오히려 미국의 세기는 조직노동운동(중심부)과 공산주의 운동(주변부)을 포섭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성의 증명. 신자유주의는 그 지속 가능성에 한계로서의 위기의 표지

* 현시기 예상되는 차이점: 실버의 『노동의 힘』의 주장들과 동일

- ①노동운동의 진원지가 동아시아로 이동할 것
- ②관료화된 국가/기업 구조의 변환 -- 중심부 백인·남성 노동자 중심의 지배적 노동자 구성과 노동운동의 형태에 변화 요구됨
- ③국가간 경쟁이 자본간 경쟁 수단 되지 못함 -- 세계노동자운동의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지향을 약화시킬 것

(5) 세계체계 분석의 반체계운동 평가와 관련성

- 국가라는 맹목점에 사로잡힌 구반체계 운동의 한계
 - 운동의 중심-주변 분할성의 지속성의 문제의식
 - 노동운동에 대한 윌러스틴의 관점: 반체계운동에서 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운동임(사회주의도 동일) -- 체계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역사적 자본주의의 일부) -- 다시 반체계적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그리고 포섭은 '체계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
- > 플라니적 계기의 충분한 확대 아님

3. 실버의 『노동의 힘』의 제한적 기여

(1) 논점의 전진보다 후퇴이기도 한점

- ① 윌러스틴에 의해 강조된 계급/가계/신분집단의 통일성의 강조가 빠짐 -- 오히려 전통적 계급개념으로 복귀 (즉자적/대자적: 노동자 자명성 문제) [물론 계급경계 모호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다]
- ② 아담 스미스적 저항관의 유지: 적대라기보다는 반발
- ③ 물결을 보여줄 뿐 그 구성과 난점/모순을 설명하지는 않는다(아리기의 최초의 계기로부터 후퇴 --조직에 의한 계급의 형성과정이 빠진 결과) --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게임처럼 환원될 수 있음
- ④ 민족적/인종적/성차별적으로 구성된 노동계급의 정체성 설명 않고 '연합적 힘'의 새로운 토대를 논의하기 어렵다 -- 연합적 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구조적 힘의 취약성 + 정치적 제도 조건만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체계모니화한 이데올로기적 힘, 그리고 그 한계를 설명해 주어야)

==> 아리기가 설명하려는 세 시기별 변화의 시간적/공간적 조건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제한적인 출발점의 자원으로서 파악해야. 자체로 positive한 전망 발견보다는 분열성/한계의 조건들을 볼 필요

- 노동운동의 역사라기보다는 노동운동 추세의 역사적 변화의 조감도라는 정도로 자리매김해야

(2) 질문

- ①노동의 소멸과 바닥을 향한 경주인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이 출현 (전지구적

접근이 필요)

②국제주의 조건 만들어지는가?: 중심-주변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다(WTO 반대 투쟁에서도 여전히 쟁점)

- 두가지 상이한 노동의 힘:

①연합적 힘

②구조적힘: a)시장 교섭력 b)작업장 교섭력

--> 19세기는 연합적 힘이 중요했음에 비해, 20세기는 작업장 교섭력 중심의 구조적 힘이 중요했음

(3) 노동운동의 추세 전환시키는 재정립들

①공간재정립

- 자동차산업의 예: 처음에 저항에 대한 대응은 a)생산재배치 b)공정혁신 c)정치적 교환

- 그에 실패하면서 생산의 재배치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노동운동 사라지는 것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

- 작업장 교섭력의 중요성

②기술재정립

- 린생산 방식의 예: 두가지 린중 인색한 린의 한계(지속성 어렵다)

- JIT는 작업장 교섭력 늘린 측면 있다

③제품재정립

- 제품주기에서 혁신단계/성숙단계/표준화단계로 구분

혁신단계 마지막에 운동의 최초 중요한 승리 나타남, 표준화 단계로 가면 바닥을 향한 경주가 나타남

- 섬유와 자동차 비교하면, 섬유가 더 확산되고, 소요가 포섭되지 못하고 반복되지만, 성공은 자동차가 더 크다 (연합적 힘이라는 특징 --이는 정치적 정세와 결합될 때만 힘을 얻었음)

- 새로운 제품으로 이전 가능성: 반도체의 고용증대 효과 적고 중심/주변에서 동시에 진행됨. 생산자서비스/교육/개인 서비스 등 보아야

④금융재정립

- 생산으로부터 자본이 이탈하는 방식이 중요

(4) 전쟁과 정치적 계기의 중요성

- 전쟁직전 소요 증가/ 전쟁기간 대폭 축소/ 전쟁 직후 대대적 상승

- 전쟁에 노동력 동원 필요(①군수산업 발전 ②병사 징발) -- 이를 위해 노동자의 민족화가 중요함 --> 시민권의 확대가 나타남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화'라고 아리기가 부른 것)

(5) 현재의 차별성

①작업장 교섭력 약화: 연합적 힘의 노력을 새로 기울일 필요

②전쟁의 자동화: 노동에 대한 양보의 중요성 적다

4. 포르토 알레그레 이후 국제주의의 문제

- 20세기 추세에서 언급하기로

<미국 헤게모니 쇠퇴의 함의>

I. 세계 경제의 차원

1. 금융화에 따른 전지구 자본주의의 교란

- 그러나 그 자체가 새로운 축적 구조 (강탈에 의한 축적: 하비)

--> 교란이 위계 체계 자체를 흔들지는 않고, 각 경제 단위들의 고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2. 금융화 우위의 축적구조에 적절한 자본주의 구조의 형성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조(금융위기를 통한 재편)

--> 동아시아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유입으로 벌충하는 구조(중국 위상의 강화/ 중국의 통화바스켓으로 이동)

3. 생산 중심지의 이전

(1) '공간 재정립' -- 생산재배치에 따른 새로운 중심지

(2) 제품 재정립 -- 새로운 선도 산업의 등장 (그러나 지역적 대체관계는 아직 아님)

오히려 '금융 재정립'의 측면이 크다

--> 특정 지역의 노동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의 생산 노동자 증가와 노동운동의 형성. 새로운 선도산업과 조직혁명에 의한 체계적 축적순환의 시작인지는 불확실

II. 국가간 체계의 차원

1. 발전주의 시대의 종료

- '두 진영'이라는 논리의 소멸. 노동에 대한 양보 필요성의 약화

- 신자유주의는 대대적인 노동에 대한 공세로: 불안정성과 체제 정당성 위기

2. 국가간 체계의 동요

- 특히 남-북 차이의 확대와 발전주의 환상의 소멸의 결과

- '남'의 발전주의에 의한 포섭으로부터의 이탈

3. 국가역할의 전환

- 민족적·사회적 국가의 약화와 신자유주의적 기업가 국가의 강화

- 국가 정당성의 약화와 응집력의 약화(국가성[장치의 측면]이 역사상 처음으로 쇠락국면: 그 한 예로 치안의 '사유화'와 조세저항)

4. 전쟁과 사회운동 관계의 변화

- 기존의 추세는 ①대전전쟁 노동운동 고양 ②전쟁기 운동 소강상태 ③전쟁 과정 권리의 양보취득과 전후 고양

- 노동집약적 전쟁에서 자본집약적 전쟁으로 이행(자동화한 전쟁) -- 노동에 대한 양보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음 --> 남(南)에서 일반화한 전쟁/ 노동자 정체성의 다층화

III. 동아시아

1. 생산의 중심지로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축과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업구조의 변화
 - 다층적하청관계의 연장인 동시에 중국 등장으로 빠른 변화(일본의 단일축으로부터의 변화 + 새로운 부분의 등장 + 금융적 중심의 변화)
2.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생산 중심성의 약화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
 - ‘탈산업화’와 서비스 노동의 문제/ 노동자의 경계의 문제 발생
3. 동아시아 내의 대대적인 노동자 이동의 발생
 - 80년대까지의 구도(노동력 이동 대신 생산의 재배치)와의 차별성
 - 초국가적 이동 대신 국내의 도/농의 분할을 활용하는 중국이라는 특성
4.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
 - 미-일, 미-중 관계의 이중성에 의해 규정되는 틈새들

IV. 노동

1. 금융화에 따른 서비스 불안정 노동 확대
 - 서비스 내적 구조의 분화와 내적 상이성
2. 새로운 생산 중심지에서 새로운 노동계급 형성
 - 특히 중국에서: ‘단위체제’로 지칭되는 노동에 대한 코포라티즘적 포섭들의 해체 여부의 문제
3. 구조조정 지역에서 노동력 구조의 변화
 - 공간재정립/ 제품재정립/ 기술재정립의 빠른 전개
 - 운동의 일시적 약화와 새로운 종류의 조직체와 운동 형태의 출현
4. 노동자 이동의 대폭 증가
 -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약화의 결과
 -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과거보다 약화
5. 성/인종에 따른 분할의 강화
 - 노동자 동일성 구성에서 ‘파멸적’ 효과는 1930년대의 파시즘 시절로 복귀 가능성도(프랑스의 예)
6. 작업장 교섭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힘의 역사적 추세의 쇠퇴와 연합적 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서비스 노동의 예)

- 19세기 연합적 힘은 ①코뮤니티의 지지 ②정당운동과 연계(민족해방 운동)을 통해서 강화됨 (섬유산업이 중심, 작업장 교섭력 취약)
- 19세기와 20세기를 비교해 보면 섬유노동자에 비해 자동차 노동자의 작업장 교섭력이 더 컸지만, 더 전투적이었던 것은 아님. 섬유노동자의 전투성은 연합적 힘에 기반(노조, 정당, 민족운동)
- 19세기 연합적 힘은 노동의 강제/ 국가의 독립/ 전쟁이라는 고리를 통해 ‘민족국가’라는 고리에 대한 쌍방간의 고려 속에서 불가피한 양보를 통해 제공 (현재 연합적 힘의 고리는 ‘국가의 수립’과 민족정체성 형성이 되지 못함)
- 20세기 작업장 교섭력은 미국적 생산방식(생산성 임금제와 조직노동자 우대하는 차별화한 노동통제를 배경으로, 그리고 체제 대립이라는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함)에 기반 -- 미국의 금융화는 이를 타격
- 서비스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운동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연합적 힘에 의존해 부분적 성과를 거둠

7. 노동자 경계의 모호성과 20세기의 지배적 형태의 해체

- 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된 정당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맑스주의의 한계점

V. 운동의 위기

1. 민족이상/ 민족 이하 아젠다에 대한 무력한 대응

- 국가를 position으로 삼을 수 없는 난점들

2. 중심 산업노동자 층의 약화와 고립

- 조직노동운동의 위기로
- 자유주의에 의해 구성된 노동자 주체의 위기

3.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계

- 원초적 배제/다문화주의적 배제 양자의 곤경

4. 노동운동과 다른 운동의 연대와 노동운동 내적 전환의 문제

- 역사적으로 구성된 노동자 동일성의 해체의 난점

5.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연계관계의 구조 변화

- 조직된노동과 조직된 정당이라는 연계관계 틀의 변화: 브라질 pt의 난점. 자파티스타와 PRD의 분리

6.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의 전면화 과정에 동반한 삶의 ‘과멸적 효과’에 초점 맞추고, 노동자 주체의 인종적/성적/여타의 사회적 분할선을 되돌아 볼 것 (가계/계급/신분 집단이라는 강조점을 살리면서)

7. 19세기말 ‘지구화’ 과정도 금융화와 더불어 자본의 공세와 노동운동의 쇠퇴가 나타남 --

이 쇠퇴는 상대적으로 짧았고 새로운 산업의 작업장 교섭력 확대와 전쟁에 수반된 노동에 대한 양보 증가가 노동의 힘을 다시 증강시켰다 (그러나 제국주의간 경합과 국가의 사회화에 따라 국제주의 붕괴): 자본위기를 노동 내부분할을 통해 극복 (현재는?)

8. 역사적 맑스주의의 한계와 존재형태의 전화

- 국제주의로부터의 이탈과 민족화라는 한계

--> 새로운 연합적 힘 강화의 조건: 19세기적 형태의 연합적 힘과의 차별성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모색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 자본의 대응과 사회운동의 대응
- 세계경제의 전지구적 차원의 변화와 계급적 대응의 local 차원화의 결합의 문제

I. Global

1. 다보스 vs. 포르토 알레그레

- 신자유주의 규범의 일반화 + a (새로운 지배질서)
- 워싱턴 컨센서스를 둘러싼 균열 (post-컨센서스)
- WTO의 한계 (중심부간/ 남-북 사이의 균열)

2. 운동의 전환

- 조직 방식의 전환: 민족 이상의 연대의 국제주의, 당중심성 탈피, 노동과 상이한 운동의 연대
- ‘누가 노동자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 기존 조직들의 새로운 연계와 대응들: 당조직/노조
- 삼극분할/ 남-북 분할을 넘어서는 비지리적 구도
- 탈상품화를 향한 노력의 필요성 (즉각적 출발로서) [더 상품화되기 전략의 한계성, 특히 발전주의 환상의 강화]
- ‘중도좌파 정부들’의 역할과 사회운동과 이들 정부의 관계 (압력과 동시에 거리두기)
 - 일방적 개방 아닌 상호 개방을 둘러싼 대립(캔쿤의 제동) / 현 생활 수준의 유지 (I.W.)

II. Regional

1. 동아시아 자본의 연계

- 투자협정 (경제적 + 정치적논리 [특히 중국과 아세안])
- 일본/중국을 포괄하는 미국의 새로운 영향권 형성 노력
- 중-미 간의 역관계의 변화: 중국 금융력의 중요성
- 정치의 과잉으로서의 동아시아 (냉전의 지정학에서부터 현재의 고려 또한 -- 남미와 대비)

2. 운동

- 이전된 자본에 대해: 운동 경험의 교류
- 이주노동자의 큰 네트워크에 대해
- 정치적 아젠다 설정이 중요함 (동아시아 정치의 과잉이라는 특징 때문: 평화주의라는 쟁점)
- 농업문제의 중요성: 중국-인도를 잇는

III. Local

- 노동력 구조 전환 따른 운동 형태의 전환
- 탈상품화를 위한 노력: 교육/의료/복지 + @
 - > 더 큰 상품화를 지향하는 운동에서부터, 이를 역전시키는 문제, 그리고 플라니적 '생태'라는 쟁점
- 차아파스나 MST의 역설: 한정된 local 운동의 global한 영향력
-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운동이어야 할 필요는 꼭 없으며, 새로운 요소담는 운동의 전화가 필요
- '민족' 담론의 변화과정 포착의 중요성 (민족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중심-주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민족경제론'의 자기비판적 전화의 필요성이라고 말한 것)
- 87-92년 이후 민중운동/시민운동 분할에 작동하는 지배의 통제 메커니즘 (더 상품화하는 노동운동과, 민중적이지 않은 시민운동 -- 마치 19세기 영국에서 개별화한 상품으로 노동자 수용과 분산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선거권이 결합한 것처럼)
- 새로운 연대에 바탕한 '연합적 힘'을 위해서는 1)노동운동 내적 전화 2)연대 방식의 변화(①담론의 전환 ②조직과 정치연계 방식의 전환) 필요

* 국제주의 문제: '국제주의인가 야만인가'

- 두가지 방식의 가능성
- ①국가의 경계 넘어서는 조직적 연대
- ②사회적 관계의 제국주의, 즉 노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자원(성차별, 인종, 민족)을 이용해 적대를 강화하고, 삶에 대한 과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넘어서려는 것